

평신도

Vol.38 2012



성화 이야기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의 <조롱받는 예수(가시관을 쓴 예수)>
약 1,490~1,500년. 참나무에 유채, 74x59cm. 런던 내셔널갤러리

예수의 수난을 그린 그림이다. 흰옷을 입은 중앙의 그리스도가 포악하게 그려진 네 귀퉁이의 간수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 고결한 인품과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보이고 계신다. 화살촉과 개목걸이를 한 위쪽의 간수들은 잔인한 고문을 일삼으며 긴 가시로 예수의 머리를 찌르고 있으며, 아래의 이교도 간수들은 사악하고 포악한 조롱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림 속, 고통의 상징인 가시관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인 후광처럼 보이는 것은, 하늘의 영광은 고통과 수난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인가?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며 신앙을 담은 내 참모습이 오히려 사악한 간수들을 닮은 것은 아닌지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권용준 • 안토니오
(문학박사, 고려사이버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Contents

Vol.38
December 2012



- 02 성화 이야기
- 04 특집 • 평신도 재창간 축하
평협회장 발간사
담당사제 축하
- 08 기획취재 • 신앙의 해 의미
- 11 초대석 • 세계주교시노드 보고
- 22 평신도가 된다 • 제주평협 문덕영 회장
- 24 열린마당
- 30 나눔칼럼 • 김승일
- 32 평신도 영성 자료
- 38 평협은 지금
- 54 가톨릭 양서 소개 • 유켓, 영화로 소통하기
- 56 바티칸 이모저모
- 58 문화포럼 • 팟캐스트와 사목적 활용
- 62 물어보세요 • 교리와 신앙
- 63 건강한 삶 • 수경요법
- 68 각 교구 기자단 소개, 공지사항
- 69 편집후기
- 70 평협회장, 단체장 자필 재창간 축하 메시지

평신도

제호는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께서 재발간하는 '평신도'를 축하하며 직접 써주신 글씨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사는 '평신도'들을 위하여

최홍준 · 파비아노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한국평협’으로 약칭되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국내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전국 단위의 사도직, 교회운동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로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 정신에 따라, 각자 세례 때 받은 사도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돼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68년 10월 14-16일 서울 대신학교에서 김수

환 당시 대주교(서울)를 비롯한 아홉 분 주교님들이 모여 개최한 가을 주교회의 총회에서 “한국 가톨릭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를 인준하고, 그 건의사항을 들어 해마다 구세주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정해 평신도의 자각을 촉구하며,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자료를 출판하기로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한국평협’이 고고(呱呱)의 소리(聲)를 냈던 것입니다. 그 후 대림 제1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주일로 옮기고, ‘평신도의 날’





을 '평신도주일'로 고치게 됐고, 이듬해 1969년 가을 주교회의 총회(10. 13-15, 왜관 분도 피정의 집)가 "평신도의 날 둘째 헌금을 거두어 본당과 교구와 전국 기구가 3등분해서 사용키로 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평협의 재정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2차 헌금의 배분은 그 후 2분의 1, 다시 3분의 1, 지금은 5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만, 평협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입니다.

평협의 활동상을 좀 더 잘 알리고, 개인 사도직과 함께 단체 사도직 활동을 촉진, 장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힘써온 한국평협은 1977년 6월 25일자로 「평협」지를 창간한 이래 「전국평협」(1983. 5. 15), 「한국평협」(1999. 2. 27) 재창간, 「평협회보」(1983년 7월-1985년 9월), 「평협소식」((2006년-2012년, 격월간 1호-38호)에 이르기까지 신문, 잡지, 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회보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좀 더 나은 소식지를 선보인다는 취지 아래 새롭게 「평신도」를

계간으로 발행하면서 제호의 글씨는 한국 교회의 어른이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께 부탁드려서 꾸며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여깁니다만, '신앙의 해'를 살면서 새롭게 출발하고자하는 저희의 열의를 어여뻐 보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2011년 10월 11일에 발표한 신앙의 해 제정 자의교서 「믿음의 문」(10항)에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로마 10,10). 여기서 마음은 신앙에 이르게 해준 첫째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의 활동이며, 이는 그 사람을 내면 깊숙이 움직이고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교황님은 덧붙이고 계십니다.

은총과 평화가 성탄과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것을 기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7,5)

손희송 · 베네딕토 신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담당사제)

+ 찬미예수님!

지면을 통해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7일 서울대교구 인사이드에 따라 사목국장으로서 부임한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발령받기 전까지는 서울 대신학교에서 18년 동안 신학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교구의 사목정책을 수립하면서 현장 사목을 지원하고, 아울러 평형을 비롯한 다른 여러 단체의 담당사제로 일해야 하는 임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제가 전공한 신학을 사목 현장에 접목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대도 큼니다.

우리는 지금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전 세계 교회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해’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지역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선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급속히 활기를 잃고, 많은 신자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가톨릭 신앙에 호감을 갖고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매년 거의 입교자 수만큼의 냉담 신자가 생깁니다. 또한 적지 않는 신자들이 이런 저런 이단적 흐름에 쉽게 현혹되어 교회를 등집니다. 마치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조금 나오다가 말라죽거나

질식해서 죽어버리듯이(마르 4,5-7), 신앙의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의 기초가 빈약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럽교회는 신앙이 식어버린 것이 문제라면,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실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때 맞춰서 적당한 양의 물과 거름을 주고,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손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싹트고 뿌리를 내려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다(로마 10,17)고 역설하였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신앙의 싹이 새롭게 움트고 뿌리를 쑥쑥 내릴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가 성사 없이는 구원될 수 없을지 몰라도 기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밤늦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서, 혹은 이른 아침 제자들이 아직 잠자고 있을 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이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으로서, 기도할 믿음이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에 평협이 주최한 ‘신앙의 해 평신도 대회’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에 가정 기도를 포함시킨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가족의 화목과 일치도 돈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과 일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톨릭교회를 통해 전해 받은 신앙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증거한 신앙이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정통 신앙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가르쳐온 신앙에 합치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져서 잘못된 교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교회의 가르침,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충실히 공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사항은 미사에서 종합됩니다. 우리는 미사의 말씀 전례 부분에서 봉독되는 성경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바치며, ‘사도신경’을 통해 공통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영성체를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신자들 서로 친교를 나눕니다. 이렇게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일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정성껏 준비해서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사랑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주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야고 3.17)이고,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갈라 5.6)입니다.

‘신앙의 해’를 충실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여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사회가 많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해 의미

이 글은 가톨릭신문에서 제공했습니다. <편집자 주>

‘신앙의 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활의 희망이 우리 곁에 다시금 자리 잡도록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다. ‘신앙의 해’의 궁극적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믿는지부터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세상에 나아가 신앙을 증거하고 이웃들을 ‘믿음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아가 공동체적인 신앙 성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공지’를 통해 홍보 및 행사, 전례, 교육, 선교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의 구현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교회는 개별 사목 현황을 반영해 사목교서와 실천지침 등을 마련하고, 각종 대회와 기념 축제 등의 일정을 제시했다. 한국교회도 ‘신앙의 해’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다채로운 학술·문화·신심 행사 등을 펼쳐나간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실천사항은 교구는 물론 각 본당과 단체, 운동 차원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의미를 각자의 일상 안에 들여다 놓는 여정이다.

‘신앙의 해’의 시작은 현대 교회생활의 길라잡이를 선보인 굵직한 기념일들과 일치한다. 먼저 50년 전 10월 11일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역사적인 막이 올랐다. 20년 전 같은 날엔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반포됐다. 세계 각국 교회는 각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10월 11일 ‘신앙의 해’ 문을 열고 성대한 개막행사를 거행했다. 이 개막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교부들, 각국 주교회의 의장단과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했다. 또한 전 세계교회에서도 교구별·본당별로 미사를 봉헌해 모든 신자들이 ‘신앙의 해’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어 ‘신앙의 해’ 기간에 펼쳐질 다양한 움직임들은 신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움직임의 우선적인 주체는 신자 개개인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도 각각의 행사 등은 신자 개개인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성장하고 활성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한국교회 내 각 교구는 ‘신앙의 해’ 기간에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방안들을 제시했



다. 또 교구마다 사제연수 및 교육을 통해 사제들이 먼저 ‘신앙의 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사목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황청에서는

교황청은 지난 10월 7~28일 바티칸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 복음화’를 주제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총회를 마련했다. 이 회의는 ‘신앙의 해’를 여는 대표적인 행사다. 이어 2013년 세계청년대회 등을 중심으로 ‘신앙의 해’를 절정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올 12월부터는 ‘신앙의 해’ 관련 전시회가, 내년 1월부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관련 전시회도 수개월간 이어진다. 또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주관으로 여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학술대회를 비롯해 각 성이 주관하는 다양한 대회와 축제 등이 ‘신앙의 해’를 주제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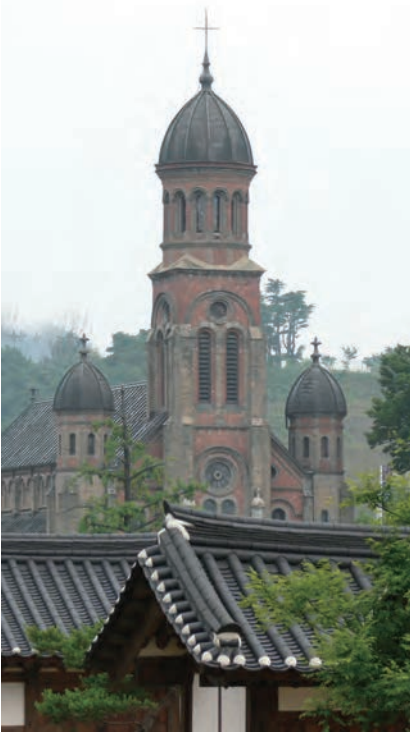
세계 각국 교회는 ‘신앙의 해’ 기간에 특별한 성모 신심을 신자들에게 권장하면서 주요 성모 순례지 방문과 순례지에서의 모임 및 행사 등도 독려했다. 또 다양한 예술 장르와 각종 매스미디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들을 활용해 대중적 차원에서 ‘신앙의 해’ 목적과 내용, 의미 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에서는

전국 각 교구는 ‘신앙의 해’ 개막미사에 이어,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각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에 돌입한다. 특히 각 본당에서는 강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앙의 해’ 의미와 실천사항을 환기할 방침이다.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신앙의 해’ 사목교서를 발표하고 “한국 신자들의 신앙 위기는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신앙의 해’의 모든 프로그램은 신앙의 기초 강화에 그 초점을 두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교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등 다섯 가지 표어를 제시하면서 교구 각 부서와 본당, 단체별로 펼쳐나갈 활동 지침을 세웠다.

우선 교구는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해 안내서」를 발간해 실천사항을 확산하는 데 힘을 실었다. 교구장과 각 사도직 단체들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다 적극적인 평신도 사도직 실천을 복돋울 방침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I DO!’ 신앙실천 캠페인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팟캐스트를 활용한 복음과 신앙체험 나눔은 일반 신자들에게



‘신앙의 해’ 의미를 알리는 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구는 또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가톨릭교회 교리서」 문헌 자료집도 보급하고, 교구민들을 대상으로 신앙체험 수기도 공모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환자 등을 찾아가 교리교육을 돕는 ‘방문 교리교사’ 양성도 추진한다. 동시에 교구는 각 본당 교리교사와 성경 봉사자들을 위한 특별 교리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 교구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밤과 피정, 학생 신앙대회와 축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만들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들도 마련한다.

각 본당 차원에서는 각종 성경공부와 성인성녀 닦아가기 행사, 「가톨릭교회 교리서」 읽기반 운영 및 교리경시대회, 주중 고해소 운영, 가정 신앙의 날 행사 등을 진행한다.

대구대교구는 제2차 교구 시노드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의 해’ 기간에 ‘신앙 재교육’과 ‘냉담교우 회두’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신앙의 해’ 뜻을 되새기는 제1기 사회교리학교도 정평위 주관으로 10월부터 열린다.

대전교구는 교구민들이 ‘신앙의 해’의 의미를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본당별로 ‘순교자의 날’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으며, 짧은 교리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지원한다.

인천교구는 교구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주교와 청년들과의 만남의 장도 펼칠 계획이다.

의정부교구는 ‘신앙의 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달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구마다 사목교서와 지침을 내고, 교구 및 지구, 본당 차원의 교리경시대회와 다양한 교리교육 과정 등을 제공하는 등 ‘신앙의 해’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 한국평협이 개최한 ‘신앙의 해’ 평신도대회에서 한국평협 최홍준 회장과 각 교구 평협 회장, 상임 단체장이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있다.

온 세상 그리스도교회 일치 가능성 보여준 장대한 회의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 참가보고

오용석 •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한국평협 사무총장)

1. 보고에 앞서

세계 주교대의원 정기총회(시노드)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2년 뒤인 1967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1차 시노드를 시작한 이래 공의회를 대신하여 4년마다 열리는 우리 교회의 최고 회의입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Osvaldo Padilla) 대주교님을 통해 보내온 9월 8일자 교황님 명의로 된 세계 주교 시노드 사무총장 니콜라 에테로비치(Nikola Eterović) 대주교님의 초청장에 따라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바티칸 성 바오로 6세 대강당 시노드 홀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에 참관인(Auditor)으로 참석하고 10월 30일 돌아왔습니다.

시노드 기간 중 주일에는 행사를 겸한 교황님과 시노드 교부님들이 공동 집전하시는 장엄미사가 있었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노드 홀에서 오전과 오후 전체집회(General Congregation)와 소그룹세션으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전체집회는 시노드 사무총장의 진행과 대표의장인 존 통 혼(John Tong Hon) 추기경(홍콩 교구장), 프란치스코 노블레스 오르테가(Francis Robles Ortega) 추기경(멕시코 과달라하라 대교구장), 라우렌트 몬쟁우 파신야(Laurent Monsengwo Pasinya) 추기경(콩고 킨샤사 대교구장)이 하루씩 교대로 사회를 맡았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대부분의 전체집회에 참석하시어 시작기도를 성가대,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하시고, 오전 또는 오후 전체집회가 끝나면 그때마다 마침기도로서 삼종기도를 이끌어주셨습니다. 등이 조금 굽으시고 지팡이를 짚으시기는 하였지만 회의 중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회의 내용을 경청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진지하고 경건하였으며, 또 미사와 회의 중에 똑똑한 발음으로 하시는 기도과 강론말씀도 힘찼습니다.

3주간 매주 6일에 걸쳐 이루어진 세계 주교 시노드의 방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요 부분만을 추려서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II.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의의

1. 교황님의 가르침에서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10월 7일 시노드 개막미사 강론 첫 머리에서 “이 주제는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 가정, 공동체와 조직체들의 삶을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외형적으로는 10월 11일 시작되는 신앙의 해와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주년과 함께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분명하게 여겨졌던 “새로운 복음화와 만민선교(missio ad gentes) 그리고 일상적 복음화와의 관계”도 설명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이유를 복음화라고 말씀하신 교황님께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한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 공동체를 확산시킴으로써 많은 신자들로 잘 조직된 교회가 되게 했음을 먼저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화는 역사의 다양한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와 성령의 감도에 의한 교회 복음화 활동의 쇄신된 역동성으로 하나의 대륙에 한정되지 않는 만민선교와 세례를 받고도 냉담 중에 있는 이들을 복음화시키는 “두 개의 분명한 ‘가지’(two specific ‘branches’)”를 가진 것이라고 정의하시므로써 새로운 복음화가 만민선교와 교회 내적 복음화를 포괄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어 교황님께서서는 이번 주교 시노드가 새로운 복음화에 헌신하여 주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떠난 이들이 “홀로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와 평화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은총의 원천인 신앙회복을 복돋아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복음화의 초점이 엄격한 의미의 선교노력이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상적 복음화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서로 보완하고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새로운 복음화와 일상의 복음화 활동이 보완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밖에도 교황님께서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특히 10월 8일 첫 번째 전체집회 묵상말씀에서 ‘복음화’의 의의를 역사적, 신학적, 성서적으로 매우 깊이 있게 해석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교황님께서서는 ‘신앙고백(Confessio)’과 ‘사랑(Caritas)’을 ‘새로운 복음화의 양축(兩軸)’이라고 하시며 모든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생활 가운데서 이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2. 현실적 의의

시노드 사무총장 에테로비치 대주교님은 시노드 개회 첫 보고에서 이번 시노드 주제의 양면을 결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의 목표는 신앙의 전수이며, 다른 한 편으로, “요즘 많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신앙의 전수 과정은 새로운 복음화 범주 안에서 이루



▲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바티칸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주교 시노드에서 교황님은 대부분의 전체집회에 참석 하셨다.

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복음화의 현실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복음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전수 자체가 이미 새로운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노드 교부들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테로비치 대주교님의 논리를 뒷받침해주었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복음화에 관한 정의와 논점들이 전체집회와 소그룹 세션에서 많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Ⅲ.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특징

1. 영적 차원

모든 시노드는 기도와 영성을 동반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시노드 교부들은 시노드 시작 때 시노드의 주인공이신 성령을 불러들임으로써 성령의 인도로 시노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체집회는 ‘오전나절 기도(Mid-morning Prayer)’로 시작하고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도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오전과 오후 회의가 끝나면 교회의 어머니이며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청하는 기도로서 삼종기도와 성모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를 위해 마련된 라틴어 매일기도서(XIII Assemblea Generale Ordinaria Del Sinodo Dei Vescovi)에 따라 바쳐졌습니다.

이번 시노드 기간에 4대의 장엄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별도로 준비된 기도서가 배포되었는데, ①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 개회와 스페인 아빌라의 성 요한(St. John of Avila) 사제와 독일 빈겐의 성녀 힐데가르트(St. Hildegard of Bingen) 수녀를 ‘교회박사’로 선포하는 10월 7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의 미사를 위한 기도서(XXVII Domenica Del Tempo Ordinario) ②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주년과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 기념하고 ‘신앙의 해’를 시작하는 10월 11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의 미사를 위한 기도서(Apertura Dell’Anno Della Fede) ③지아코모 버티웨(Giacomo Berthieu), 페드로 칼롱소드(Petro Calungsod), 죠반니 바티스타 피아마르타(Giovanni Batista Piamarta), 마리아 델 몬테 카르멜로 살레스 이 바라구에라스(Maria del Monte Carmelo Salles y Baragueras), 마리안나 코프(Marianna Cope), 카테리나 테카크위타(Caterina Tekakwitha), 안나 쉐퍼(Anna Schäffer) 등 7위 복자를 시성하는 10월 21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의 미사를 위한 기도서(XXIX Domenica Del Tempo Ordinario) ④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 폐회 파견미사로서 10월 28일 성 베드로 대성당 미사를 위한 기도서(XXX Domenica Del Tempo Ordinario)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노드 회의 주 출입구 옆에 설치된 부속 경당에 성체가 모셔져 시노드 참가자들이 회의 전후에 성체조배와 묵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노드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모임을 강하게 인식시켰습니다. 이 경당에는 성령의 모자이크와 함께 방 가운데 베드로좌가 놓이고 그 주변에 11사도좌가 마련되어 로마의 주교좌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치의 교회상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 신학적-사목적 고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시노드 주제 결정 후에 시노드 사무국은 가톨릭교회 주교단의 자문을 받아 몇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성한 ‘의제개요(Lineamenta)’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헌은 서론과 3개의 장에 걸친 신학적 및 사목적 내용과 설문을 담아 2011년 3월 4일에 발간되어 각국 교회에 배포되고 각국

교회와 단체들은 각 설문에 대해 개별적 상황에 따른 답변을 2011년 11월 1일까지 시노드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시노드 첫 날 시노드 사무총장은 시노드 사무국에서 취합한 설문 응답률을 발표하였습니다. 응답률은 평균 90.5%이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별로 응답률을 보면, 로마교정(Curia Romana) 부서장 응답 25/26(96.15%), 동방 가톨릭 자치교회(Eastern Catholic Churches sui iuris) 응답 11/13(84.62%), 각국 주교회의 응답 93/114(81.58%)이었습니다. 대륙별로는 대양주 100%와 미주 95.80%로 높았지만, 아시아주 88.80%, 유럽주 81.25%이고, 아프리카주는 66.6%에 그쳤습니다.

시노드 사무국 상임회의는 응답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그것을 요약하여 2012년 6월 19일에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번 시노드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의안들을 담고 있는 이 문헌은 시노드 교부들을 비롯한 시노드 참가자들의 발표에 핵심적 참고서로 활용되었음을 개인적 발표를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의안집 13항 “복음화되는 것으로부터 복음화하기까지”라는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3. 시노드 참가자 구성

이번 시노드의 교부는 모두 262명으로 역대 시노드 중 가장 많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103명, 미주 63명, 아프리카 50명, 아시아 39명, 그리고 대양주에서 7명입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교부들의 구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교 시노드 전례(Ordo Synodi Episcoporum) 규정에 따라 동방 가톨릭 자치교회 수장(Head)과 로마교정 부서장들은 직권에 의해(ex officio) 시노드에 참가하는데 이번 시노드에 직권으로 참가한 교부는 37명입니다. 이들 외에 동방 가톨릭 자치교회에서 3명이 더 참석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가한 교부 40명, 주교 25인 이상의 각 주교회의와 동방 가톨릭 자치교회 시노드에서 선출된 교부 172명, 수도장상연합회(Union of Superior Generals)에서 10명의 교부가 선출되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시노드 교부의 절대 다수인 182명이 선출에 의한 참가자입니다.

교부들의 지위는 총대주교 6명, 추기경 49명, 주요 대교구장 3인(이 중 1명은 추기경), 대주교 71명, 주교 120명, 신부 14명(주교가 없는 주요 수도회 대표)입니다. 고위직 참가자는 동방 가톨릭 자치교회 수장 10명, 주교회의 의장 32명, 로마교정 부서장 26명입니다.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에 5개 대륙(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으로부터 45명의 특별비서 협조자(또는 전문가)와 49명의 참관인이 참가했습니다. 전문가의 대부분은 신부, 부제, 수사, 수녀이며 남녀 평신도 9명은 평신도 신학자들입니다. 국가별로 이탈리아, 미국, 영국이 각각 2명, 필리핀, 중국(홍콩), 독일이 각 1명씩입니다. 참관인에도 신부, 수사, 수녀 18명이 포함되어 남녀 평신도는 31명이었습니다. 평신도 참관인은 이탈리아가 7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4명, 프랑스와 스페인이 각각 3명, 시리아 2명, 나머지 12명은 바티칸, 러시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이집트, 멕시코, 쿠바, 콩고, 케냐, 나이지리아, 인도, 한국 1명씩입니다.

4. 특별 참가자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에는 이웃 교회와 교회공동체 지도자로 그리스 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Ecumenical Patriarch)인 터키의 바르톨로뮤 1세(Bartholomew I), 전 영국 및 성공회 공동체 수석 주교인 로완 더글러스 윌리엄스(Rowan Douglas Williams) 캔터베리 대주교가 참석했습니다. ‘형제 대표자들(Fraternal Delegates)’로는 동방정교회의 핀란드 대주교, 모스크바 총대주교, 세르비아 정교회 주교, 루마니아 정교회 이탈리아교구 주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가톨릭코사트 주교와 신부, 성공회 공동체 셰필드 주교, 루터교 세계연맹 감목 등이 참가했고, 세계 개혁신교회 공동체로 감리교 협의회, 침례교 세계 연합, 세계 복음주의 연합, 루마니아 교회 종교회의, 유럽 교회 회의 등에서도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속화와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가 가톨릭교회에 한정된 과제가 아닌 전체 그리스도교의 공통된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 손님으로 프랑스 테제 종교공동체 알로이스(Alois) 수사, 교황 직속 과학아카데미 의장으로 스위스 바젤대학 미생물학 교수이며 유전학자인 베르너 아베르(Werner Arber) 박사, 미국성서학회 회장 라마 베스트(Lamar Vest) 박사가 초청되었습니다.



▲ 참관자로 초청받은 필자는 시노드 폐막 장엄미사 예물봉헌자로 선정되어 교황님으로부터 한국교회평신도로서 특별강복을 받기까지 하였다.

로완 더글러스 윌리엄스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는 10월 10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임석한 오후 전체집회에서 새로운 복음화와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수에 대한 성공회의 관점을 말했습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업적을 평가하고 가톨릭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정신을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는 현세에 적응시키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고 위기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뮤 1세는 10월 11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님을 비롯한 시노드 교부들과 함께 ‘신앙의 해’ 출범 장엄미사를 봉헌하고 가톨릭교회에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난 전날 겻세마니 동산에서 모두가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인용으로 인사말을 시작한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50주년을 축하하고 ‘신앙의 해’의 의미와 가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의 신학적 대화와 일치 노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영국 성공회 대주교나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의 이번 시노드 방문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교황이 되시기 이전부터 동방교회성 위원,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평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으며, 교황 착좌 이후에는 끊임없이 루터교, 정교회, 성공회, 독일복음주의교회연합, 유대인공동체, 이슬람교 등 이웃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과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윌리엄스 성공회 대주교와의 관계는 2010년 교황의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목방문 때부터 매우 밀접했습니다. 그때 교황께서는 최초 영국 국민방문으로 성공회 수장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만나고 9월 17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교회일치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9월 19일에는 버밍햄에서 성공회로부터 개종하여 추기경이 된 존 헨리 뉴먼의 시복식과 미사를 집전하셨던 것입니다.

교황 성함과 바르톨로뮤 1세의 친교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2005년 4월 24일 교황님께서 착좌하실 때 정교회 양식에 따른 팔리움을 두르셨고 교황으로서 6월 30일에 바르톨로뮤 1세를 대표로 하는 교회일치사절단을 접견하신 이래 지금까지 매년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만남은 2006년 11월 교황님의 터키 사목방문 때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미사를 바르톨로뮤 1세와 공동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와 정교회의 상호 일치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신 것, 2008년 6월 28~29일 ‘바오로 해’ 개막 행사의 공동 집전, 그리고 이번 ‘신앙의 해’ 출범 미사의 공동 집전을 들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종교 간 대화 노력은 예수회 제르마노 마라니(Germano Marani S.J) 신부님의 발상으로 기획되어 교황 베네딕토 16세, 바르톨로뮤 1세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 키릴 모스크바 총대주교, 윌리엄스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 볼프강 후버 전 루터교 독일평의회 의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과 유럽 정치지도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유럽의 종들’(Bells of Europe)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록영화는 이번 시노드 10월 10일 오후 전체집회가 끝난 후 시노드 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스위스 바젤대학 미생물학 교수이며 유전학자로 197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인 베르너 아베르 박사는 10월 12일 교황께서 임석한 오후 전체집회에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의 적응적 지식(orientational knowledge)의 충격 문제,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충격 문제, 과학 지식의 문화적 가치, 과학 지식과 종교적 신앙의 공존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계신다면 과학 지식에 의한 인간의 행복증진을 지지하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앙과 이성인 인간이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

한 두 개의 날개”라는 그의 말은 신앙과 과학과의 관계를 한 마디로 요약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강연은 오늘날 팽배되고 있는 이른바 ‘과학적 무신론’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V.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 교부들의 메시지

1. 메시지 위원회의 구성과 메시지 작성

이번 시노드가 시작되자마자 시노드 교부들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초안하도록 12명으로 구성되는 메시지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위원회 의장에 성좌 사회컴뮤니케이션 평의회 의장인 클라우디오 마리아 첼리(Claudio Maria Celli) 대주교, 부의장에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Antonio G. Tagle) 필리핀 마닐라 대교구장(이번 시노드 기간인 10월 25일에 추기경으로 서임)을 임명하시고 위원으로 2명의 주교를 임명하셨으며 나머지 8명은 시노드 교부들이 선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 위원회에 의해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및 독일어로 작성된 14개 항의 초안은 10월 20일 오전 전체집회에서 발표되어 토론이 부쳐졌고 언어별로 구성된 소그룹 회의에서 상세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10월 26일 오전 전체집회에서 시노드 교부들의 투표로 교황님께 건의될 최종 메시지가 채택되었습니다.

2. 메시지의 내용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로마 1:7)로 시작되는 메시지는 1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항목별 주제만 소개하겠습니다.

- 1)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 2) 우리 시대의 모든 이를 주님께 인도하는 새로운 복음화
- 3)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만남
- 4)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성경말씀을 들음
- 5) 자신의 복음화와 회개에 자신을 얽
- 6) 오늘날 세상 안에서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포착
- 7) 복음화, 가정과 헌신적 삶
- 8) 교회 공동체와 많은 복음화 일꾼들
- 9)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 10) 복음의 인간문화와의 대화와 종교들과의 대화
- 11) 신앙의 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상기와 가톨릭교회 교리서 언급
- 12) 신비의 묵상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함
- 13) 세상의 여러 종교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 14) 별이신 마리아께서 사막을 비추심

메시지 1)항에서 말하고 있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5-42)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다른 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적 화두로서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입니다.

IV. 제13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건의안

1. 건의안 목록의 형성 과정

세계 주교 시노드의 사명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노드 총회를 통하여 모아진 시노드 교부들의 총의를 교황님께 전달하여 교황님께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회칙이나 사도적 권고 등을 발표할 수 있게 해드리는 ‘최종 건의안 목록(Final List of Propositions)’입니다. 3주간에 걸친 시노드 총회의 모든 발표와 토론은 ‘최종 건의안 목록’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교 시노드를 3단계로 나눈다면 제1단계는 시노드 주제와 관련된 개별적 교회의 상황에 입각한 발표(intervention)를 통해 신앙과 문화적 경험을 나누는 단계이며, 제2단계는 모든 시노드 참가자들이 언어별 소그룹으로 나뉘어 의제에 관해 토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노드 교부들에게 주제의 명료화를 위한 문제 제기과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번 시노드에서 투표권을 제외하면 그런 기회는 시노드 교부 외에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제3단계는 소그룹 회의를 통해 건의안 목록이 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건의된 항목들에 대해서 소그룹별로 시노드 교부들이 찬반투표를 합니다. 소그룹별로 채택된 내용들은 총발표자(Relator General)와 특별비서(Special Secretary)에게 제출되어 취합된 다음 총발표자가 전체 회의에서 발표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번 시노드의 총발표자로 미국 워싱턴 대교구장인 도널드 윌리엄 우얼(Donald William Wuerl) 추기경을 임명하고 특별비서로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교구장인 피에르-마리 카레(Pierre-Marie Carree) 대주교를 임명하셨습니다. 우얼 추기경은 10월 23일 오전 전체집회에서 ‘종합된 건의안 목록(United List of Propositions)’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목록은 다시 소그룹 회의에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시노드 교부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검토된 후 10월 26일 오전과 오후 전체집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오전 마지막 전체집회에서 항목별로 시노드 교부들의 찬반 투표에 부쳐져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최종 건의안 목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주교 시노드 전례’ 규정 제15조와 제39조는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의 ‘최종 건의안 목록’의 공식 텍스트를 라틴어로 작성하고 시노드 교부들의 투표에 부쳐 교황님께 전달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2. '최종 건의안 목록'의 내용 구성

최종 건의안 목록의 공식 텍스트는 '비밀문서(Confidential)'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이번 시노드의 '최종 건의안 목록' 비공식 영문본을 공개하도록 특별히 배려하셨습니다. 비공식 영문본에 따르면, 내용은 총 58개의 건의안들이 서론과 4개의 중 주제, 그리고 결론으로 분류·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주제와 건의안의 제목만을 적어두었습니다만 새로운 복음화는 시노드 교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주제가 광범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론		3) 우리 시대 환경에 대한 사목적 대응	
건의안 1	교황님께 제출되는 문헌임을 명시	건의안 26	본당과 기타 교회 현실
건의안 2	시노드의 교황님에 대한 감사 표시	건의안 27	교육
건의안 3	동방 가톨릭교회들	건의안 28	성인교리교육
1) 새로운 복음화의 본질		건의안 29	교리교육, 교리교사 그리고 교리서
건의안 4	새로운 복음화의 원천인 성삼위	건의안 30	신학
건의안 5	새로운 복음화와 토착화	건의안 31	새로운 복음화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
건의안 6	복음의 선포	건의안 32	병자들
건의안 7	교회의 영원한 사명차원으로서의 새로운 복음화	건의안 33	고해성사와 새로운 복음화
건의안 8	세속화된 세상에서의 증언	건의안 34	주일과 축일
건의안 9	새로운 복음화와 첫 선포	건의안 35	전례
건의안 10	복음을 선포할 권리와 들을 권리	건의안 36	새로운 복음화의 영적 차원
건의안 11	새로운 복음화와 기도가 충만한 성경읽기	건의안 37	새로운 복음화에서 건진성사
건의안 1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건의안 38	그리스도인 입문과 새로운 복음화
2) 오늘날 교회 사명의 맥락		건의안 39	경신과 새로운 복음화
건의안 13	우리 시대의 도전들	건의안 40	교황 직속 새복음화촉진평의회
건의안 14	새로운 복음화와 화해	4) 새로운 복음화의 일꾼들과 참가자	
건의안 15	새로운 복음화와 인권	건의안 41	새로운 복음화와 개별교회
건의안 16	종교의 자유	건의안 42	통합사목활동
건의안 17	신앙의 전조와 신뢰의 신학	건의안 43	계층별 은사와 카리스마 은사
건의안 18	새로운 복음화와 사회소통수단	건의안 44	본당에서의 새로운 복음화
건의안 19	새로운 복음화와 인간개발	건의안 45	새로운 복음화에서 평신도 역할
건의안 20	새로운 복음화와 예술	건의안 46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협력
건의안 21	이민자들	건의안 47	복음선포자의 육성
건의안 22	회심	건의안 48	그리스도인 가정
건의안 23	성화와 새로운 복음선포자	건의안 49	수품 성직자의 사목적 차원
건의안 24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건의안 50	봉헌생활
건의안 25	도시 시나리오들과 새로운 복음화	건의안 51	청년과 새로운 복음화

건의안 52	교회 간 대화
건의안 53	종교 간 대화
건의안 54	과학과 신앙의 대화
건의안 55	이방인의 들

건의안 56	창조의 관리직
결론	
건의안 57	그리스도인 신앙의 전수
건의안 58	마리아, 새로운 복음화의 별

이번 건의안(20)에도 포함되었습시다만, 교황님께서서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시노드 참가자들을 시스티나 성당 미술을 다시 감상하도록 하시고 저녁에는 교황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시노드 참가자들은 물론 바티칸의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들을 바오로 6세 대강당으로 초청하시어 ‘예술과 신앙’(Arte e Fede)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게 하셨습니다. (이 CD는 현재 평협 사무국에 비치)

V. 보고를 마치며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는 단지 가톨릭교회의 최고 회의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교회의 중심으로서 온 세상 그리스도교회 일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장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일치된 친교의 교회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였습니다. 시노드 기간에 종파를 초월한 온 세상 그리스도인 대표자들이 순례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엄하게 시성된 성인은 신부님 두 분, 수녀님 두 분, 그리고 평신도 세 분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조화를 이룬 점은 그것을 잘 상징해주었습니다.

시노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직자, 수도자, 특히 평신도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똑같은 대우와 배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와 참관인 자격으로 시노드에 참가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시노드 교부님들과 똑같이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고 소그룹회의 토론에 참여하였음은 물론 숙소, 식사, 봉사하시는 신부님들로부터의 도움 등 모든 것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과 참관인들은 많은 시노드 교부님들로부터 한 달 가까운 짧지 않은 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숙소와 회의장에서 정말 송구할 정도로 극진한 형제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노드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위로는 교황님으로부터 추기경님, 대주교님, 주교님,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 남녀 모든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야말로 섬김의 공동체 모습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더없이 큰 신앙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시노드 폐막 장엄미사 예물봉헌자로 선정되어 교황님으로부터 한국 교회 평신도로서 특별 강복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 영광을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과 함께 나누며 보고를 끝냅니다.

아름다운 기다림



오늘은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첫 주, 네 개의 초 가운데 회개와 보속을 상징하는 보라색 초가 켜졌다.

매년 맞이하는 대림시기지만 예년과 달리 보라색 초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마음에 자리 잡음은 나이 한 살 더 든다는 아쉬움과 두 달이면 마감하는 교구 평협 회장 4년 동안 교구와 평신도를 위한 일을 하느님 마음에 들게 열심히 하지 못한 후회 때문이다.

그러나 잔잔하게 마음 한편으론 역사의 긴 끈의 한 매듭이라도 엮지 않았을까 하며 위로를 하며 보람된 일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1, 2기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하여 450여 명이 수료한 것과 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의 배려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두 번 방문해 교구민들의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여 병원과 성당을 짓고 우물을 파는 일에 도움을 줌으로써 나의 좁았던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회장직을 맡은 첫 해 강정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하시던 교구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평협 차원에서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평협 임원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어 괴로웠다. 모두가 열성적으로 교회의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신자들인데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의 괴리를 깨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것이 사회교리학교를 교구장님의 적극적 지원 아래 개설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시작했으니 차츰 신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진정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날이 오리라 본다.

이 글을 쓰면서도 강정을 생각한다. 우리가 있어야 공사장 정문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는



육지에서 오신 신부님들과 평화 운동가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앉아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감옥에 갇혀 계심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으로 죄스럽다.

요즈음 성당마당은 온통 벚나무의 잎들로 가득하다. 난 마당 한 구석으로 가 그중 예쁜 잎 몇 개를 주워 정성껏 성가 책갈피에 곱게 펴 놓려 둔다. 이듬해에 새로운 잎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그것도 아름답게 자신을 내던진 모습의 잎들에서 내려놓음과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마음을 읽는다.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림 첫 주, 올해만큼은 예수님 오심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도록 예수님 탄생과 그리스도 재림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섬에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겠다.

유난히도 추울 것이라는 올 겨울, 게다가 나라경제마저 꽁꽁 얼어붙어 굶주림과 추위, 고통과 슬

픔 속에 있는 내 주변의 이웃을 찾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공권력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강정마을을 찾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반짝이는 성탄트리와 구유 안의 아기 예수님을 보며 눈으로만 성탄을 맞이했던 어제까지의 자세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면 참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꽁꽁 얼어붙은 땅 밑에도 봄이면 솟아올라 싹을 틔우는 생명이 있듯이 나의 마음 깊은 어딘가에 있을 사랑의 씨앗도 싹을 틔어 생기있게 자랄 수 있겠지.

문덕영 • 알렉산더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하느님께 저축하는 '봉사'




지난해 6월, 우연한 기회에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부 후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됐다. 세례 받은 지 30년이 넘는 동안 교리교사, 성모회 등 본당에서는 열심히 활동했지만 교구 차원의 활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난감했다. 더구나 쉰 살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됐다. 하지만 제안을 해주신 신부님과 수녀님의 격려와 식구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됐다. 올 10월 3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걷기대회'는 내가 신자가 된 이후 치른 가장 큰 행사였다. 우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교님을 비롯해 6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이 행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단 하루의 행사를 위해 한 달 반을 준비했다. 남산 북측 순환로를 따라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까지 총 7km를 걷는 이날 행사에서 내가 담당할 일은 '지원팀' 일원으로서,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비록 비중이 큰 역할이 아닐지라도 작은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많은 분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봉사라는 일이 이렇듯 항상 큰 행사만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상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다 보니 봉사를 하기 전의 생각과 막상 하면서 직접 부딪히며 느낀 것은 많이 달랐다. 봉사를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은 거창하게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런데 후원회에서 생각보다 소소한 일을 하게 되자 적잖이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봉사가 마냥 기쁘고 보람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걸림돌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왔다. 특히 '사람' 간의 관계가 가장 어렵게 다가왔다. 평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선물로 여겼지만 같은 봉사자들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미묘한 갈등을 겪을 때면 힘겹기도 했다. 봉사하는 자신을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봉사를 더 하고 덜 하고에 대해 따지고... 직접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회의감이 들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겼었다.



그 순간,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묵상하고 기도하게 됐다. ‘과연 나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작은 일부터 스스로를 낮추어가며 보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봉사라고 하면 힘들고 거창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끼게 됐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부심도 생겼고 다른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결국 ‘내 자신’에 대한 문제였다.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찌 보면 지금 하는 이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아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만 살아오다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내 자체가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물론 짧은 기간의 봉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얻은 것이 더 많았다. 특히 봉사를 마치고 난 후 느끼는 왠지 모를 뿌듯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였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나는 하느님께 저축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한 번 봉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된다.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봉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하늘에 저축하는 것은 물론 신앙공부도 하게 되니, 좋아도 ‘너~~무’ 좋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느님과 신부님, 수녀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 제가 여기있습니다”하며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리라고 믿는다. 나의 부족함마저도.

권계순 • 레지나
(서울 종암동본당)

고통 뒤에 숨어계신 예수님



경상도 시골본당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복사를 서던 어린 시절 신부님께서 복사단을 모두 모아놓고 커서 신부가 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탕거리면서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끝내 손을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장남인 제가 신부가 되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손을 들었던 친구 3명은 신부가 되어 양떼를 이끄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자주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신부님이 되신 친구들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평신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성소를 잘 산다면 그때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겠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만 순간 순간 죄의 구덩이에 빠지거나 악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로 일어나 다시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은 충남의 바닷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시원한 바람과 밝은 햇살을 맞으며 출근길에 나섭니다. 오늘엔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을 뵈기를 원하면 회사에서 마주치는 직원들 안에서도 숨어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열심히 바닥을 쓸고 계시는 청소부 아주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께 밝은 소리로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하며 웃음을 보냅니다. 사무실 안에서 무릎 인대가 늘어나 목발을 잡고 다니는 신입직원 안에 계신 예수님께는 상처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유의하라는 정성어린 마음을 전하고, 결혼을 코앞에 둔 직원에게는 회사 일보다 결혼에 더 신경 쓰라는 사랑의 말을 해줍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원인의 노기에 찬 목소리에는 “아! 예수님 당신이시군요.” 하며 그분의 입장이 되어 자상한 대화로 그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공회사 직원 분들에게서도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희를 대신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웃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고통이 먼저 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나 부하 직원에게 내



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망설임과 자존심의 고통이 찾아오고, 민원인이 전화를 할 때면 짜증이라는 고통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온 고통을 사랑하려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뵈는 순간,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해 미소가 피어오름을 느낍니다. 오후에 허겁지겁 사무실로 달려오신 시공회사 소장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억지주장을 부릴 때도 아! 당신이신가요? 당신임을 알아보았을 때 저에게는 당혹감과 논쟁의 고통 대신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은 기쁨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저녁 회의석상에서 지시한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상사의 호령소리에 미움과 서운함의 고통을 느끼지만 제가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상사에 대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능한 한 상석을 차지하려는 자만심 높은 나를 발견하면서 어리석음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 아! 제 안에도 당신이 계시군요! 하면서 낮은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서비스하는 식당종업원과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에게도 격려의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갈등의 고통이 찾아오지만 당신의 향기를 발견하는 즉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면 저의 마음도 따뜻해 집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또 한 분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오늘은 허리가 아프시다니 허리를 열심히 마사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지만 '주님의 몸인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화해 버립니다.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지 하는 분노의 고통에서 그분을 발견하면 "눈이 피곤할 텐데 좀 쉬었다 해."라고 부드럽게 인사합니다.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은 몇 분의 예수님을 만났는지 혹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과의 숨바꼭질이 성덕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기에 성령께 청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제 이웃 형제 안에 숨어계신 예수님을 꼭 발견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김학수 • 프란치스코
(당진화력발전소 토목부장)

오늘날의 평신도의 신원과 소명(召命)에 대한 단상(斷想)



미국 유학 시절, 코네티컷 주 그리니치의 한 작은 한인 공동체에 얼마 동안 정기적으로 주일 미사를 집전하러 다닌 적이 있다. 그곳은 미국 본당에 속해 있는 공동체이고 한국인 상주 사제를 모시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안식년이나 유학 중인 한국인 손님 신부를 주일에만 불러서 한국어 미사를 지낸다.

그런데 구심점인 상주 사제가 없지만 이 공동체는 20년 이상 잘 유지되어 왔다. 그 비결은 바로 그 공동체의 사목회장님이었다. 사목회장님은 의사였는데 오래전부터 여름휴가 중 한 주일간 꼭 남미의 한 작은 무의촌에서 의료 봉사를 조용히 다녀오시곤 했다. 예비자를 위해서는 직접 교리를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동체의 교우들을 이끌고 빈민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하셨다. 이처럼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는 회장님에게 사람들은 지속적인 존경심을 보내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 헌신하는 한 명의 평신도가 사제 못지않은 역할을 하며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통해 교회의 위계 안에서 낮게 평가되었던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을 새롭게 정립했다. ‘교회 헌장’과 ‘평신도 교령’에서 말하듯이 20세기 후반부터 교회는 위계적인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쪽 모두 선택된 하나의 ‘하느님 백성’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된 품위’를 지니며,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교회헌장 32항 참조)

교회헌장은 “평신도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 신원을 설명하고 있다. 성직자들이 신자들을 사목하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된 것이 우선적인 사명이라면 평신도는 세속 안에 살며 세속 직업을 살아가는 한 가운데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의 성화(聖化)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선적인 소명이라고 하였다(31항). 또한 평신도들은 견진과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발전과 그 끊임없는 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교회의 구원 사명에 참여하는 ‘평신도 사도직’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한다(33항). 따라서



“모든 평신도는 교계 사도직과 직접적으로 협력하며, 그들이 각자의 능력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회의 구원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도록 불린 것”이다(33항).

공의회는 더 나아가 “성직자와 평신도는 함께 온 인류를 위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선언한다(교회헌장 9항). 이 하느님 백성은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 구원과 일치의 성사(聖事)가 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공의회는 그들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불림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성직자들이 맡은 직무 사제직과는 본질에서 다르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각기 고유하게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교회 헌장 10항).

이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헌장에서 그리는 평신도상과 오늘날 평신도들의 실체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양쪽 모두에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평신도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세상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신자가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거나 복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교육과 모범으로 평신도들을 이끌어야 할 성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을 동등한 협조자로 여기지 않거나 수명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능력을 갖춘 평신도들이 자신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할 때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평신도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보편 사제직’을 잘 수

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계는 소명 의식과 능력을 갖춘 평신도들에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그에 합당한 교회 안의 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남녀의 상호보완과 협력을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자면 남성 성직자 위주의 교회 리더십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도 자격 있는 여성 수도자들이나 여성 평신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에서 ‘성직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성직자의 역할을 폄하하거나 그들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가톨릭교회가 1960년대 이후 사제 수도자 성소가 급감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들과 함께 성직자의 사회적 위상의 추락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 성직자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성직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큰 편이다. 하지만 성직자의 권위주의는 성직자의 지위가 높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생겨난 미성숙함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미성숙한 지도자가 나타나 권위주의와 독선으로 그 조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평신도가 사제 대신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그가 미성숙하다면 얼마든지 권위주의의 폐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제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소에 응답하고 오랜 기간 자신의 삶을 바쳐 사제직을 준비해 온 만큼 그들이 자신들의 고귀한 소명을 잘 인식하고 더욱 성숙한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성직자들의 잘못된 판단에는 비판과 조언을 하되, 합리적인 지도에는 기꺼이 따르고 사제로서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박정우 • 후고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봉사는 서비스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교회공동체에서 '장' 역할을 봉사라고 친다면, 벌써 3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MBC가톨릭교우회 회장 봉사를 1년 반 했고요. 지금은 방송, 영상, 영화, 인터넷,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가톨릭 교우들의 모임인 시그니스서울(SIGNIS, 서울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에서 회장 봉사를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봉사하신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만큼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른두 살 나던 지난 1984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어색하고 서툴러. 거리감 두고 성당을 다녔습니다. 성체를 나눠주시는 분들이나 전례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을 대하면 어려워져 먼발치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사목회장. 무슨 회장, 무슨 간사 하시는 분들을 저와는 아주 다른 세계의 분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BC가톨릭교우회 정진민 전임 회장님이 저더러 교우회 부회장을 맡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듯했어요. 아니, "저를 제대로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하며 펄쩍 뛰었지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게다가 저는 제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요. 방송사에서 30여 년 온갖 라디오 프로그램들, 그것도 음악프로그램, 쇼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지만, 노래를 잘못해서 여흥자리에서 힘들어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

다. 성당에서 성가를 부를 때도 자신 있게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움츠러들다보니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취재를 하다보면 제 목소리도 녹음되고,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다보면 제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래! 난 목소리가 나빠."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물거립니다. 그런 저더러 부회장을 해보라니요. 게다가 한 해 뒤엔 교우회 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까지 들었습니다.

"별 거 아니야. 봉사야. 봉사하는 건데 뭘 주저해."

머뭇거리다 용기를 낸 건, 어느 형제님이 해준 그 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봉사라면 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요. 사실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바람은 가졌습니다만 제대로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회장직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봉사를 한다고 나섰지만 봉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해봤어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셈할 수 있지요. 그 점에서 저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은 일에 그저 열심히 하는 습관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를 했어요. 경

힘도 자질도 부족하다보니, 이 사람, 저 사람, 주위 분들에게 매달릴 수밖에요. 그저 열심히 귀 담아 듣고, 들은 대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분은 하느님이 다해주신다고 말하지만요.

봉사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를 자꾸 고민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모범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교우님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주님의 좋은 말씀도 전해드리거나, 그런 생활을 함께 하도록 길잡이가 되어 찬찬히 알려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요. 신앙적으로 매우 부족한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요. 방송인. 언론인들의 모임이다보니 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도와 드려야 하는데요, 선지자처럼 시대를 읽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니, 그건 더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질적인 봉사가 떠올랐지요. 빨랑카를 자주 해서 주위 분들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 봉사도 있겠고요. 우선순위를 봉사하는 모임에 들어서, 이 자리, 저 자리, 이 모임, 저 모임에 가능한 한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기도 봉사도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기도 속에서 함께하지요. 크고 작은 행사에 정성을 기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제대로 해내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도 듣고, 저 혼자 뿌듯해 하기도 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면서요. 정호승 시인은 지난달 ‘가톨릭언론인신앙학교’ 강의에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면서, 사랑의 기쁨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함께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던데요. 봉사의 보람에도 고통이 따르네요. 어떤 일은 애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고, 심하면 마음 상하는 말도 듣지요.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속 좁은 생각에 혼자 속을 끓이기도 합니다. 말석에 앉아서 하인처럼 교우 여러분을 섬기려고 마음잡았는데 어찌다보면 저도 모르게 우쭐거리며 나대는 제 자신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한답시고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탄식하며 부족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요.

“주님께서 백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어떤 번거로운 행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 수녀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송구스러워지네요. 보답을 자꾸 생각하다보니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봉사료를 받는 서비스맨처럼 봉사하면 어떨까? 호텔이나 식당에서 친절하게 봉사하는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주잖아요. 저도 그런 수준의 봉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한 거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마음을 함께하며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는 것이지요. 옷도 단정히 차려 입고,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세련되게 모시는 겁니다. 감동을 받을 만큼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단골손님도 많이 생기고, 팁도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을 만큼요. 하지만 고급 호텔이나 고급 식당의 전문적인 서비스맨처럼 서비스할 능력이 어디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인 기대 수준을 맞출 수나 있겠어요? 이래저래 봉사한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어렵기만 합니다.

김승월 • 프란치스코
(MBC 국장, 시그니스서울 회장)

신앙의 해와 평신도



정태우 •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장)

이 글은 2012년 11월 10일 대구대교구 가톨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평협 '신앙의 해' 평신도대회에서 발표된 강의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시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믿어야 한다는 요구 앞에서 난처해하는 시대에 교황님께서서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왕 믿고 있는 사람들, 곧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한층 더 깊고 단단한 결의로 응답하라는 요청입니다.

1. 교서 『믿음의 문』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2011년 10월 11일에 자의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을 반포하시면서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를 '신앙의 해(Annus Fidei)'로 정하셨습니다. 자의교서(motu proprio)는 교황님께서 스스로 발의하시어 반포하시는 교서입니다. 교황님의 교서 가운데 가장 엄중하고 높은 것이 '사도좌 헌장(Apostolic Constitution)'이고 『믿음의 문』은 권위에 있어서 그 바로 다음 가는 '사도적 서한(Apostolic Letter)'에 속합니다. 『믿음의 문』을 사도적 서한으로 반포하신 것은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매우 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해에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복음화'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칩니다.

2. 새로운 복음화

교황님께서서는 교서 『믿음의 문』 7항에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신앙의 가치를 부정하고 또 신자들마저도 신앙을 사회생활의 당연한 전제로 여기려 하지 않는 경향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과 활력을 주기보다는 힘든 숙제처럼 되어 버렸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고,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말이 바로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그러므로 복음이 새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신앙의 성찰

복음화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스스로의 쇄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안팎에서 자주 하지만 참된 쇄신은 제도나 규칙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쇄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의 쇄신을 위해서는 성찰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고, 그 둘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며, 그 셋은 내가 믿는 바와 내 행동이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말씀하셨고 또 교황님께서서 교서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진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능력은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고, 인간의 재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교를 할 때에 일어나는 일,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는 이 사건은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 곧 기적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른다면 그것은 맹목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자리를 잡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행동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믿음의 내용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교리 지식을 외우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형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튼튼해지기 위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도와주실 것이다’하는 믿음으로 실행하다 보면, 정말로 하느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반복됨으로써 확신이 생기고, 더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4. 신앙 쇠신과 평신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귀중한 것이 바로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신도가 신앙의 쇠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는 것과, 그 말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1) 신앙의 내면화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신 덕행이지만, 또한 돌보고 길러서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자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서만 맴돌아서도 안 되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성모님의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자궁 안에까지 들어가서 내 몸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해에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라고 교황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이러한 신앙의 내면화를 통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육화하여 내 몸 안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2) 신앙의 고백

성직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몰두하도록 혼인생활의 의무나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굴레에서 자유롭습니다. 앞날을 걱정할 일도, 자녀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짐들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평신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용맹하게 실천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납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영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취할 때, 곧 여러분의 생활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3) 신앙의 실천

우리가 몸에 굶는 십자가의 표시는 나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 자진해서 보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 하느님께 봉헌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한 제물이 될 자격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큰 제단에서 무수한 평신도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제물을 봉헌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도, 그 사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도 위대한 귀감이지만, 바로 자기 옆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보여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꼭 필요한 새로운 복음화인 것입니다.

한국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 전통과 과제



노길명 · 세례자 요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

이 글은 2012년 11월 10일 대구대교구 가톨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평협 '신앙의 해' 평신도대회에서 발표된 강의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한국천주교회는 불과 200년을 넘을 정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몇 가지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한국천주교회는 서구 선교사들의 개입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내재적 요구와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창립되었다는 점에서 세계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발생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한국천주교회는 오랫동안 정치권력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천주교회는 놀랄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84년 한국천주교회가 창립된 후 신자의 수효가 1백만 명에 이르기까지는 정확히 190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1백만 명이 다시 1백만 명이 늘어 2백만 명에 이르기까지는 불과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이후 7년마다 1백만명씩 늘어 현재는 5백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한국천주교회는 활발한 사회복지활동, 인권운동, 사회정의운동,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천주교회의 신앙 전통은 무엇이고, 오늘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천주교회 신앙적 기반으로서의 '순교 영성'

가장 이상적인 신앙 형태와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된 신앙공동체였다.

둘째, 초대교회는 사회적 장벽을 초월한 신앙공동체였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한몸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초대교회는 친교와 나눔의 공동체였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목

격한 사도들의 증언과 설교를 듣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수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본받고자 노력하였다.

다섯째, 초대교회는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신앙공동체였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였다.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신자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그들은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증거하였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유랑생활을 하거나 깊은 산속에서 교우촌을 이루며 살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평등과 나눔을 통해 실천하고 증거하였다.

한국천주교회 신자들의 신앙형태는 세 가지로 유형화됐다. 그것은 ‘순교 영성’과 ‘내세·종말론적 영성’, 그리고 ‘사주구령 영성(事主救靈靈性)’이었다. ‘순교 영성’이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려는 신앙을 말하고, ‘내세·종말론적 영성’이란 현세에 대한 만족보다는 영원한 내세에서의 영복(永福)을 희구하는 신앙을 말한다. 그리고 ‘사주구령 영성’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생활에 적극 참여하려는 신앙 자세를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신앙들은 기본적으로는 ‘순교 영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회의 신앙전통은 ‘순교 영성’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 영성’의 성장과 한국천주교회의 성장

‘순교 영성’과 함께 한국천주교회의 신앙과 활동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 영성’이다.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자유가 시행된 것은 1945년 9월 7일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하면서 선포한 ‘미태평양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의해서였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회는 새로 전개되는 민족사에 적극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미군정은 물론 민족 지도자들에게 건국과 정부 수립에 조언과 협조를 하는 한편, 유능한 평신도들을 정계에 진출시킴으로써 민주정부의 출현과 민족국가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였다. 또한 교황청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가장 먼저 승인하는 한편 새로운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한국천주교회의 사회활동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인권운동과 정의구현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러한 한국천주교회의 물음에 지표가 되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며, 인간구원이란 영적 구원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구원이라고 선언하였다. 1970년 이후 한국천주교회가 인권운동과 정의구현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한국천주교회의 영성적 기반이고 전통인 ‘순교 영성’ 또한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리스도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으려는 강한 신념과 의지가 한국천주교회의 사회활동의 에너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3.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 흐름

최근 실시된 여러 조사보고서들을 보면, 이러한 신앙 전통을 해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여러 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 흐름들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주의적이고 현세중심적인 성향의 확산이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과는 달리, 교리나 교회의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계율에 대해서도 자기의 형편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앙생활은 여가나 취미생활처럼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장식품처럼 간주하는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일미사 참례자가 전 신자의 23%에 불과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둘째, 감각적이고 신비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천주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천주교신자들은 신흥종교의 우선적 대상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으며, 교회 일각에서는 특정 개인의 종교체험을 중심으로 소위 '사적 계시운동'들이 퍼져나가기도 한다.

셋째, 혼합주의 신앙이다. 여러 조사결과들을 보면, 상당수의 신자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율회설을 비롯한 타종교의 교리나 한국의 토착민간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넷째, 신앙과 행동의 불일치이다. 예를 들면, 성경과 교회에서는 생명의 존엄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천주교 신자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비신자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여러 사회조사 결과들을 보면, 천주교신자들의 낙태경험률이 타종교 신자들나 비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과 삶이 상당히 유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상대주의의 확산이다. 최근에는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덕목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종교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종교적 상대주의가 확산되어나가고 있다. 상대주의는 천주교 신앙의 절대성과 교회의 존재가치를 폄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전한 신앙을 저해하게 된다.

4. 맺는 말

한국천주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급성장할 수 있었던 에너지는 바로 '순교 영성'과 '사회 영성'이었다. '순교 영성'과 '사회 영성'은 한국천주교회의 전통이고 자랑이다. 한국천주교회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평신도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피를 먹으며 자란 한국천주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화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조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전통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

'신앙의 해'가 시작되었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되새기고 그것을 오늘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오늘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해'에 주어진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6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과 연주미사

일시 : 2012년 7월 18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내용 :

상	곡명	이름	소속
최우수상	주님 저희와 함께	신사빈 마르티노	의정부교구 중산성당
우수상	기다림	김세은 라파엘라	서울대교구 대치동성당
	화해와 사랑의 미사	이철수 메네덕토	수원교구 안산 성요셉 성당
장려상	주님 저희와 함께	김길범 아우구스티노	서울대교구 성산동성당
	주님을 따르리	이철웅 프란치스코	서울대교구 세검정성당



아프리카 평신도대회 7,000유로 지원

내용 : 9월 4일부터 9일까지 카메룬에서 열린 아프리카 평신도대회에 연대의 의미로 바티칸 평신도평의회를 통해 지원금 7,000유로 송금(교구평협, 회원단체 모금), 바티칸 평신도평의회 의장 리우코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파딜라 대주교로부터 감사편지가 도착했다.

우눔옴네스 총회 참석

일시 : 2012년 9월 14~23일
 장소 : 이탈리아 로마
 참가 : 최홍준 회장, 유영훈 사무국장
 내용 : 1948년 창설돼 한국평협이 2009년부터 가입한 우눔옴네스 총회에 참가했다. 3년 임기의 새 회장에 현 회장인 나일케네디(아일랜드)가 연임됐고, 한국이 집행위원국에 선출되는 동시에 한국은 2014년 집행위원회 개최를 제의 받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심포지엄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평신도사도직

일시 : 2012년 10월 11일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성당
 참여 : 평협 임원, 단체 등 관심 있는 신자 80여 명 참석



내용 :

- 인사말씀-최흥준 회장
- 격려사-조규만 주교(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 제1주제-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성서적 의미(발제:주원준 박사, 지정토론:전봉순 수녀)
- 제2주제-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발제:조광 교수, 지정토론:정연정 신부)
- 제3주제-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세상의 변화와 평신도사도직(발제:정진호 박사, 지정토론:이정희 교수)
- 종합토론

제4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일시 : 2012년 11월 9일
 장소 : 대구대교구 베네딕토 영성관
 참여 : 회장단 7명 참석, 13개 교구 참석(불참 수원, 군종교구), 3개 단체 참석(마리아 사업체, 광주 세나투스, 대구 세나투스), 임원 등 총 45명 참석
 내용 : 한국평협 행사 보고와 각 교구평협과 상임단체 행사보고, 2013년 사업계획안 확정과 '신앙의 해' 우리의 다짐 발표를 의결했다.

'신앙의 해' 평신도대회

일시 : 2012년 11월 10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대구대교구 가톨릭교육원 대강당
 참여 : 한국평협 상임위원, 대구대교구 신자 등 600여명 참석
 내용 :
 · 개회사 : 최흥준 회장(한국평협)
 · 격려사 : 박영일 신부(대구대교구 사목국장)
 · 환영사 : 김종해 회장(대구평협)



- 강의1 : '신앙의 해와 평신도' 정태우 신부(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장)
- 강의2 :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전통과 과제' 노길명 교수(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세계 주교 시노드 참가보고 : 오용석 사무총장
- 파견미사 :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
- 우리의 다짐 발표 : 한국평협 회장단, 각 교구 평협회장, 상임단체장

제7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일시 : 2012년 11월 12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명동대성당
 내용 :

상	곡명	이름	소속
최우수상	목주기도	조범진 대건 안드레아	서울대교구 대방동성당
우수상	주님께 가는 길	최미경 루시아	서울대교구 역촌동성당
	기도	이소라 스텔라	서울대교구 공덕동본당
장려상	걱정하지 마라	안혜련 로사리아	서울대교구 도곡동성당
	어머니 마리아	신중완 알베르토	의정부교구 중산성당
	내가 가는 길	구대철 토마스 아퀴나스	부산교구 청학성당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순교자 현양 특강과 미사

일시 : 2012년 9월 6일, 13일, 20일 오후 2~4시

장소 : 명동대성당

내용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3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순교극과 함께하는 평협 시복시성 전국성지순례



일시 : 2012년 10월 18~20일(2박3일)

순례지 :

1일) 명동출발~청양다락골성지~초남이성지~여산 숲정이성지~천호성지

2일) 천호성지 출발~황새바위성지~갈매뭇성지~여사울성지~공세리성당

3일) 공세리성당 출발~성거산성지~수리산성지~명동성당 도착

내용 : 서울평협은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의 하나로 배우 장정국 베드로의 순교극과 함께하는 시복시성 전국성지순례를 실시했다. 평협임원, 일반 신자 등 80명 참석

제9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 전시회



일시 : 2012년 10월 31일~11월 6일(시상식 11월 1일)

장소 : 평화화랑 제2전시실

참여 : 360여 편 응모

내용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사진가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찬한 제9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인 전태용 님의 「어머니의 손」 외에 우수상 2편, 가작 5편, 입선 42편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가작 30만원과 함께 상패가 수여됐으며, 입선에는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됐다.

제8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일시 : 2012년 11월 12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참가성당 : 장위동, 성산2동, 문래동, 구의동, 반포, 수유동

내용 : 평신도 주일을 기념하며 신앙인들 간의 친교와 일치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잔치로 짙수지구 내 6개 본당이 참가하는 성가합창제를 개최했다.

나가사키대교구 자매결연 재개를 위한 방문과 성지순례

일시 : 2012년 11월 14~17일(3박4일)

장소 : 일본 나가사키대교구

참가 : 서울평협 임원, 단체장 등 22명

내용 : 서울평협은 1990년 5월 일본 나가사키대교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양국 친선협정 발표일인 1991년 8월 15일 명동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이후 1994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32명이 공식 방문한 것을 끝으



로 결연이 중단되었으나 올 초 아시아교회 교류활동을 위한 계획으로 나가사키대교구와의 결연을 재개하기 위해 서울평협 임원과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20여 명의 방문단이 나가사키 대교구를 방문했다. 교구장 다카미 대주교를 예방하고 간담회를 통해 자매결연 재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구체적인 결연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몽골 선교 20주년 기념 방문

일시 : 2012년 7월 7~12일

장소 : 몽골 울란바토르

대상 : 유흥식 주교, 박진용 신부(사회사목국장), 양희창 신부(한끼 100원 나눔 운동본부 담당)와 김홍거 회장 등 대전평협 임원

내용 : 몽골선교 20주년을 맞아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



교와 대전평협 임원 등이 몽골 현지를 방문해 인류복음화성 차관 사비오 혼 타이파이 대주교 주례, 오스발도 파딜라 교황대사,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몽골지목구장 웬즈 주교와 몽골 선교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몽골선교 20주년 기념미사' 봉헌과 한국미바회에서 기증한 차량 전달식, 바양호소 마리안느 병원 축복식, '한끼 100원 나눔 운동본부'와 협약식, 한인 신자들 방문, 대전교구 파견 사제들과의 만남, 항울성모성당에서 그곳 신자들과 만남 등 행사를 진행했다.

2012년 카리타스 한생명 대축제 성가음악제

일시 : 2012년 10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해미성지

참가 : 교구 신자 1,000여 명

내용 : 현혈과 장기기증이라는 생명운동과 성가음악제를 접목시켜 교구 내 10개 성당의 성가대가 출연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장기기증 신청과 헌혈을 희망하는 20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대축제였다.



청주교구평협, 대전교구평협 친선 교류 행사

일시 :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장소 : 청주성신학교



참가 : 대전평협과 청주평협 임원, 여성연합회 임원 등 45명 참가
내용 : 두 교구의 평협 회장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교구 평협이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교류하며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합의하여 매년 번갈아 주최하며, 올해는 3회째로 친선체육행사를 가졌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강의선 힐라리오 신부의 사제 수품 50주년 금경축미사

일시 : 2012년 10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답동 주교좌성당
참가 : 내빈 및 교구신자 300여 명
내용 : 교구 제1대 사제 인 강의선 힐라리오 신부의 사제 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가 봉헌되었다. 미사 후에는 교구청 4층에서 강의선 신부의 금경축과 함께 팔순 축하연이 있었다.



신앙의 해 개막미사

일시 : 2012년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답동 주교좌성당
참가 : 교구 신자 500여 명
내용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앙의 해를 맞아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신앙의 해 개막미사가 봉헌되었다. 이날 최기산 주교는 신앙의 해 사목교서를 발표한 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미사를 끝마치며 교황 강복을 했다. 한편 교황청에서는 신앙의 해를 맞아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였다.

제19회 인천교구 M.E 대회

일시 : 2012년 10월 21일 오전 9시
장소 : 부천실내체육관
참가 : ME 부부 5,000여 쌍

내용 : 제19회 인천ME대회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요한 15, 5)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교구 ME 부부 5,000여 쌍이 참석한 이 대회는 ME 사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가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목적으로, 부부 친밀과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2 교구장님과의 만남 및 총회장 연수

일시 : 2012년 7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장소 : 수원교구청 지하대강당
 참가 : 수원교구 본당 총회장 190여 명
 내용 : 교구민과 지역사회의 사정을 교구장에게 알리고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본당 총회장들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실시한다.



제8회 총대리주교배 어린이복사단 축구대회

일시 : 2012년 10월 3일 수요일
 장소 : 수원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
 참가 : 600여 명의 복사단과 가족 500여 명
 내용 : 매년 축구를 통해 어린이복사단 간의 형제적 친목을 도모하고, 경기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2012 제3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일시 : 2012년 9월 7~8일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참가 : 각 교구 평협 회장단 및 한국평협 임원 60여 명
 내용 :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 개최 및 주관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청주교구, 제14회 평신도 베타성지 도보순례

일시 : 2012년 9월 22일
 장소 : 진천 백곡초등학교에서부터 배티성지까지
 참가 : 1,800여 명
 내용 : 하나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님 시복시성 현양을 위해 마련한 도보성지순례에 1,800여 명의 평신도들이 참가하여 도보성지순례 후 오찬, 미사 및 특강으로 마무리했다.



청주·대전교구평협, 친교의 한마당

일시 :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장소 : 청주성신학교
 참가 : 대전 평협과 청주 평협 임원, 여성연합회 임원 등 45명 참가
 내용 : 3회째를 맞는 친교의 자리로 올해는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청주성신학교로 초청하여 합동미사를 시작으로 분과 임원 소개, 배구, 오찬, 족구시합, 마무리 행사 순으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4회 진해 왜성 산상미사

일시 : 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왜성(웅천관계로 진해 덕산성당에서 미사봉헌)
 참가 : 교구신자 200여 명
 내용 : 웅천 왜성은 임진왜란 당시 축조된 왜성으로 예수회 소속 세스페데스 신부께서 1593년 임진왜란 중에 왜군의 군종신부로서 1년간 사목할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사가 봉헌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마



산교구 평협은 2009년부터 매년 가을 왜성의 성역화를 기원하고, 국내 첫 미사 봉헌의 의미를 기리는 산상미사를 올해 4회째 봉헌해 오고 있다. 올해는 갑작스런 우천관계로 인근 덕산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성현 신부로부터 세스페데스 신부의 생애와 파견 배경 등에 대한 특별강론을 듣고 평협이 제공한 간단한 중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제2회 명례성지 심포지엄

일시 : 2012년 9월 8일
 장소 : 명례성지
 내용 : 명례성지 조성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마산평협이 후원한 '제2회 명례성지 심포지엄'은 '강성삼 신부의 생애와 영성'이라는 주제 아래 김정환 신부(내포교회사 연구소장)의 '강성삼 신부의 가계와 신학생 시기', 한윤식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의 '강성삼 신부의 사목활동', 이재민 신부의 '명례성지 조성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성현 신부(가좌동본당 주임)와 손숙경 교수(동아대학교)의 논평이 있었다.



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장 연석회의



일시 : 2012년 8월 17일
 장소 : 마산 M호텔
 내용 : 마산평협이 주최하는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교구 내 평신도 사도직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각 단체의 현황과 현안 등을 발표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교구 평협의 당면 활동계획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산본당 순교자성월 행사

일시 : 2012년 9월 22일
 장소 : 대산본당
 참가 : 마산지구 3지역 6개 본당의 사제와 300여 명의 신자
 내용 : 순교자성월을 맞아 매일 봉헌해 오던 구한선 타대오 순교자 현양미사를 성체 거동 행렬과 성시간, 성체강복과 함께 거행하였다



제 2회 마산, 창원지구 성가 합창제

일시 : 2012년 9월 8일
 장소 : 3.15아트센터 대극장
 참가 : 마산, 창원 지구 10개 본당
 내용 : 마산교구 합창단이 주최하고 마산, 창원지구 성가대 협의회가 주관해 성가합창제를 개최했다.



제21회 거제지구 순교자 현양대회

일시 : 2012년 9월 22~23일
장소 :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내용 : 거제지구는 순교자 성일을 맞이하여 9월 22일 '순교자 현양 마당극'을, 23일 '순교자현양대회'를 개최하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여성위원회 임원연수회

일시 :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 진도 운림산방 일원
참가 : 임원 부부동반 30명
내용 : 담당사제 우원주 신부님과 함께 진도 일원을 여행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한편 전반기 추진사업 검토와 후반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사항 검토와 2013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토의했다.

교구장님과 함께 하는 도보성지순례

일시 :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 노안성당~계량재~이별재광장~옥산~무재~울음재~오두재~경현동~나주순교자기념성당(약 13km)
참가 : 사제, 수도자, 평신도 730여 명
내용 : 순교자성일을 맞아 교구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님과 여러 신부님, 수녀님, 신자들이 함께 다소 힘든 산행의 순례길을 걷고 나주순교자기념성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현양미사를 봉헌했다.



제3차 상임위원회

일시 : 2012년 9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교구청 회의실
참가 : 상임위원 20명
내용 : 교구장님과 함께 하는 도보순례와 교구 설정 75주년 기념 평신도의 날 '평신도대회' 세미나에 대한 진

교구설정 75주년 및 대교구승격 50주년 기념 '평신도의 날'

일시 : 2012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오후 10시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영주종합체육관
 참가 : 200여 명
 내용 : 교구 설정 75주년 및 대교구 승격 50주년 기념 평신도의 날 행사로 '평신도대회' 세미나와 목주기도의 밤, 파견미사 봉헌으로 진행되었다.

▷평신도대회 세미나

- 주제1.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평신도사도직
 박순석 요한(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논평. 손석준 엘리야(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장)
- 주제2. 평신도가 바라는 사제상
 강산근 미카엘(전 전주평협 회장)
 *논평. 정기수 스테파노(전 광주평협 회장)
- 주제3. 교구 75년 역사 안의 평신도 활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김기주 스테파노(전 광주평협 회장)
 *논평. 조상현 안드레아(광주평협 복음화부장)



성체조배회 대피정

일시 :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 임동주교좌성당
 참가 : 600명
 내용 : '성사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강영구 루치오 신부(마산교구 태평동성당 주임)의 특강으로 신앙의 해를 맞이하면서 성체와 함께하는 삶을 제시해 주었다.

북부지구평협 한마음축제

일시 : 2012년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2시~오후 6시
 장소 :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참가 : 북부지구 내 18개 본당 700여 명
 내용 : 사랑팀과 평화팀으로 나누어 OX게임, 지구를 옮겨라, 단체 줄넘기 등 게임을 하면서 신앙공동체의 단결과 친교를 나누었다.



추계성령대회

일시 : 2012년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 영주대건·경환성당
 참가 : 1,200명
 내용 : 교구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자 차동엽 신부의 특강으로 추계성령대회를 가졌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피정

일시 : 2012년 7월 6~7일 1박2일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참가 :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27명(남학생 6명, 여학생 21명)
 내용 :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요한 15,11)를 주제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손 마리수산나 수녀의 진행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인사를 비롯해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는 자기 긍정, 고해성사, 성경 통독 및 기도, 묵상, 필사, 나눔 등의 시간을 가졌다. 가톨릭 간호사로서의 소양과 정체성을 미리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 이 피정은 2002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포먼스가 이어졌으며 한밤중엔 전국이사회로 첫날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 십자가의 길과 신자촌 둘러보기,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의 파견미사로 한국 가톨릭간호사협회 회원들의 전국 피정이 마무리되었다.



중앙임원들, 제주도 도보성지순례 및 피정 실시

일시 : 2012년 11월 23~25일 2박3일
 장소 : 제주 면형 피정의 집
 참가 : 중앙임원, 회장단 등 20여 명
 내용 : 23일부터 24일은 ‘환희의 길’을 걷고 24일부터 25일은 면형의 집 피정센터에서 피정을 하였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 대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개최

일시 : 2012년 10월 20~21일 1박2일
 장소 : 한티 피정의 집
 참가 : 14개 교구 220명 회원
 내용 : “숨 쉬는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하여라.”(시편 150,6)를 주제로 손기철 대구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지도신부의 인사와 김종현 신부의 한티순교성지 소개, 이창영 신부의 ‘생명윤리’ 강의, 예수성심시녀회 김연희 수녀의 ‘영혼아 기뻐하라’는 제목의 새 삶에 관한 퍼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2012 전국 하계수련대회

일시: 2012년 8월 8~10일
장소: 경주국민청소년수련원
참가 대상 및 인원: 각 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회원 및 봉사자 400명
내용: 야외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려 친교를 나누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미사, 체험활동, 선교회별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



2012 하반기 전국 회장단 회의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오후 3시
장소: 수원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안양 소재 가톨릭복지회관)
참가 대상 및 인원: 각 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 및 봉사자 25명
내용: 연 2회 각 교구 회장단이 모여 사업 관련 논의를 하고 활동 보고를 통해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각 선교회 활성화를 도모한다.(프로그램: 미사, 회의, 친교)



한국가톨릭약사회

황새바위 순교성지순례 및 특강 실시

일시: 2012년 11월 4일
장소: 공주 황새바위 순교성지
내용: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는 11월 4일(일요일) 충남 공주의 황새바위 순교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황새바위 순교성지는 성인 손자선 토마스와의 기록된 치명자 337위, 그 밖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우들이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지이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제15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총회(AFCMA 2012) 및 학술대회 참가

일시 : 2012년 10월 18~21일

장소 : 인도네시아 발리

참가 : 강준기 명예회장, 조건현 회장, 고영초 교수

내용 : 15차 AFCMA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톨릭 의사들의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총 15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강준기 명예회장은 '장애 어린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며 우리 가톨릭의사들은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조건현 회장은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지난 4년간 역할과 실제 국내외 선교 활동, 업적 등을 보고했다. 또 고영초 교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중 가톨릭신자들을 돌보아주는 라파일크



리닉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상태, 연간 업적 등을 포스터로 발표하였다. 이번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임원 개선에서 한국의 강준기 명예회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조건현 교수는 회원관리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약사회, 의사회 공동 소식

응급(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동참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급(사후)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분류 안은 향후 공청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 협회 직능단체인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약사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적극 동참하였다.



레지오 마리아 광주 세나투스

신단원 교육

일시 : 2012년 7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평생교육원 103호 강의실
 참가 : 세나투스 직속 꾸리아 브레시디움 신단원
 내용 : Se. 직속 Cu.의 3년 미만인 단원을 대상으로 레지오의 목적과 정신, 의무에 대해 교육하였다.



기사 3단계 교육

일시 : 2012년 8월 31일~9월 2일(2박3일)
 장소 : 광주 명상의 집
 참가 : 기사 1, 2단계를 수료한 레지오 단원
 내용 : 선교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선교사명에 대한 집중교육과 전략, 실습을 통해 가두선교활동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천주교를 알릴 수 있는 레지오 기사 3단계 현장교육에 86명의 단원이 수료하였다.



묵주기도의 밤

일시 :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
 장소 : 영주종합체육관
 참가 :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자
 내용 : 천주교 광주대교구 설립 75주년 및 대교구 승격 50주년 기념축제 평신도의 날을 맞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주최로 성모님을 모시고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주기도의 밤 행사를 하였다.



평의회 간부연수회

일시 : 2012년 10월 28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평생교육원 대성당
 참가 : 광주세나투스 직속 Co. Cu. 4간부
 내용 : 2013년 신앙의 해를 맞아 교황님의 자의교서 w' 믿음의 문'을 읽고 신앙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2012년도 활동 평가 및 2013년도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국가이사회장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일시 : 2012년 10월 26~28일 2박3일
 장소 : 필리핀 마닐라 가톨릭 비오 7세 센터
 참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한국이사회 정해정 요셉 회장
 회장과 서울교구 김은배 안드레아 회장
 내용 : 한국빈첸시오와 서울빈첸시오 회장이 국가 이사회회장단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한국이사회 회장은 교구회장단과 산하 협의회까지 이 교육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왔다. 내용으로는 빈첸시안 사명과 비전, 영성, 국제회칙과 정관/요점, 국가이사회장의 역할 및 책무, 소통능력, 지도력, 팀빌딩 연습, 효율적인 회의 수행 등이다.



빈첸시오회 정해정 회장, 몽골 지목구장 예방

일시 : 2012년 8월 21일
 장소 : 몽골 울란바토르 지목구
 내용 : 정해정(요셉)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회장은 지난 8월 18~23일 5박6일간 몽골에서 펼쳐진 한국 빈첸시오 청년들의 봉사활동 가운데 울란바토르 지목구 주교관을 방문해 웬체슬라오 파딜랴 주교를 예방하고 환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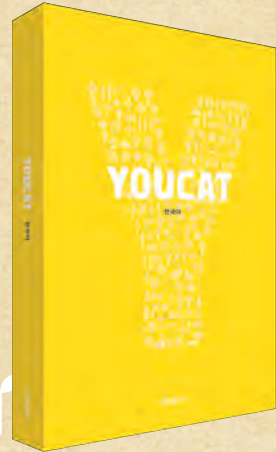
제45회 평신도 주일
2012. 11. 18

행계를 사랑하며 '신앙의 불꽃'을 태웁시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YOUCAT



200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가톨릭교회 교리서 요약본’ 출간 기념 기자회견장. 한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책은 젊은이들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리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빈 대교구장 크리스토프 쇤보른 추기경을 위시한 오스트리아 주교회의는 ‘가톨릭교회 교리서’(1997년 라틴어 표준판)를 바탕으로 이 책의 뼈대를 구성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여름 캠프까지 열어 50여 명의 젊은이들과 매일같이 토론을 벌였다. 이런 산고 끝에 탄생한 책이 ‘YOUCAT’이다.

이 책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일독할 것을 적극 추천하시고, 교황청 신앙 교리성이 ‘신앙의 해’ 추천도서로 지정한 ‘공식 가톨릭 청년 교리서’다. 기존 교리서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요소를 설명하는 데 반해 YOUCAT은 처음부터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됐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언어로 전개된다. 우선 527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쉬운 대화체로 구성된 게 돋보인다. 마치 박도식 신부의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연상케 한다. 거기에다 가장자리에 관련된 성경 구절, 성인이나 교부의 말씀 등이 실려 있어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특히 청년의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수많은 컬러사진과 유머스럽고 감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책장을 빨리 넘기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까지 배치하여 읽는 것 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조규만 바실리오 서울대교구 주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면서 이 책을 추천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세계를 열광시킬 만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류 열풍’이 그렇습니다. 30대의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20대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하였듯이 이벽,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 우리의 신앙 선조들도 모두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김선동 • 루카 편집위원

영화로 소통하기



‘14세 소년, 극장에 가다’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라는 책을 출간해 청소년들을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길로 친절하게 이끌었던 영화 전문기자 이대현이 영화 홍보 전문가로 일하는 아내 김혜원과 함께 내는 ‘영화 제대로 보기’ 종결판이다. 영화에 관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살인의 추억’ ‘마더’ ‘의뢰인’ ‘도가니’ 등의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영화에 천착해온 이대현과 김혜원은 시대의 화두인 ‘소통’의 방법으로 올바른 영화 감상법을 제시한다. 그들의 말을 빌려보자. “영화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영화가 원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의 전제조건은 나와 너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되는 공감이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눈과 마음을 열고 영화를 만나야 한다. 결국 영화가 원하는 소통은 영화가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내고 사랑하는 일이다.”

책은 최근 상영된 30편의 영화 속에 녹아있는 자아와 만나야 할 인간과 세상, 그리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들을 담았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그래도 나는 나다’라는 ‘자아’를, ‘건축학개론’은 ‘첫사랑은 잊지 못한다’라는 ‘기억’을, ‘완득이’는 ‘멘토는 조건이다’라는 ‘소통’을, ‘링크차를 타는 변호사’는 ‘돈보다는 진실이다’는 정의를, ‘화차’는 ‘사회에도 있다’는 책임을, ‘부러진 화살’은 ‘영화일 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기적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키워드를 제시한다. 나아가 책은 그러한 사실을 섬세한 느낌과 감성, 예리한 눈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준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소설이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외쳐야 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그것도 모자라 영화가 다시 외쳐야만 와들쩍 놀라서 되돌아보는 사회는 훨씬 더 불행하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영화비평서가 아니다. 영화를 통해 세상이 이야기하고, 영화를 통해 공감의 글쓰기를 모색한다.

한국일보 가톨릭교우회 회장이기도 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관용이나 공감보다는 적대감과 이기적 진실로 불통의 벽을 쌓고 사는 우리에게 그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2012년 가톨릭 매스컴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다.

김선동 • 루카 편집위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1월 21일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주례 일반알현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신앙이 이성과 결코 대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앙에 관한 교리 교육의 일환으로 한 이 연설의 주요 내용을 바티칸 통신(VIS) 자료를 토대로 번역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앙은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느님 당신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며, 우리 의식을 왜곡하는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의 제한된 지평을 넘어 실재 전체를 알도록 해줍니다.

가톨릭 전통은 이른바 신앙 제일주의(fideism)를 늘 배격해 왔습니다. 신앙 제일주의란 이성을 거슬러 가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신비이지만,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그 신비를 명상하는 이성이 오직 어둠만을 볼 뿐이라면, 이는 그 신비가 전혀 빛을 담지 않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빛을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때, 음영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누가 태양이 빛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이신 그 ‘태양’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역사 내 계시를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으셨고 당신 자신을 알려 주셨으며 한계를 지닌 인간 이성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으로 이성을 비추어 주시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새 지평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진실과 실재를 향한 지치지 않는 탐색을 결코 그치거나

내키지 않아 하지 말고 추구하라는 끊임없는 자극입니다. …지성과 신앙은 하느님의 계시에 낮설거나 반대되지 않습니다. 지성과 신앙은 하느님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참다운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그 신비의 문턱에 접근하는 데에 모두 필수불가결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앙은 합리적이며 또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자라게 합니다. 나아가, 신앙의 지식은 이성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갈망에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운 관계만이 하느님께 이르는, 또 자아 실현에 이르는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 간의 올바른 관계 또한 이해와 믿음 간의 이 결실 풍부한 상호작용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조사는 인간과 우주에 관한 새로운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줍니다. 신앙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참된 선은 인간이 발견하는 그 길이 반드시 따라야 할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따라서 예컨대 생명에 도움이 되고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간이 창조계의 정점에 있는 것은 창조계를 무분별하게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계를 보호하고 살 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우리 지구와 우주의 비밀들을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은 과학과 충돌하지 않으며, 과학과 공동으로 작동하면서 과학이 보편적 선을 증진하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토대들을 제공합니다. 또 하느님의 원래 계획에 배치되어 인간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과학이 하지 않도록 요청할 따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성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주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에 과학이 신앙의 소중한 동맹이라면, 신앙은 또한 과학적 발전이 그 원래 계획이 충실한 가운데 인간의 선과 진리를 향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이 신앙에 자신을 여는 것은, 또 하느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휴머니즘 즉, 인간과 실재의 참다운 ‘문법’을 세웁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입니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이창훈 • 알폰소
(서울평협 기획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최기홍 · 바르톨로메오 신부
(천주교 춘천교구 문화홍보국장)

팟캐스트(Podcast)와 사목적 활용



시작하는 말

2011년과 2012년은 각종 선거와 국내외 정치 및 언론 환경 때문에 대안 매체로 떠오른 팟캐스트가 한국 사회에 알려진 해였다. 팟캐스트 방송 중 ‘나는 꿈수다’ ‘뉴스 타파’ ‘이털남(이슈 털어주는 남자)’ 등과 같은 정치 시사 프로그램들이 팟캐스트를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나는 꿈수다’는 한국 팟캐스트의 순위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국내외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뜨거운 관심 속에 한국은 2012년 초 팟캐스트 세계 다운로드 순위 5위를 기록했다.

현재 팟캐스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치, 종교, 예술, 교육, 취미, 언어코스, 코미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전통 매체인 라디오와 TV의 일부 프로그램들도 팟캐스트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이 시장 확장과 제품 소개를 위해 팟캐스트를 마케팅 전략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팟캐스트는 뉴미디어 시대에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1. 팟캐스트란?

팟캐스트(Podcast)란 애플사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이 결합된 새로운 말로,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를 서버에 올려놓은 것을 개인 컴퓨터나 개인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을 의미한다.

팟캐스트가 다른 온라인 미디어와 다른 점은 사용자가 매번 미디어를 선택하거나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구독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곧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다. 기존 TV와 라디오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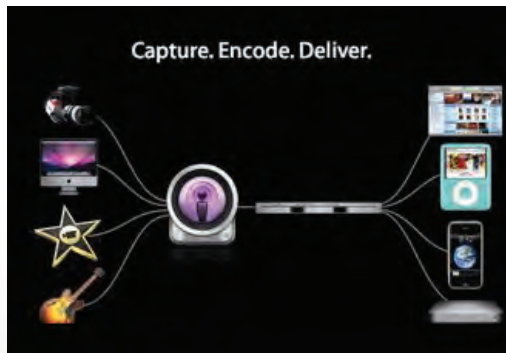


해진 시간에만 방송을 송출하지만, 팟캐스트는 청취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접속해 내려받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하여 방송 링크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기가 아주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온라인 미디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가 늘고 있고, 이용자층도 젊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팟캐스트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더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선인터넷의 속도 증가와 서비스 지역의 확대, 클라우드(Cloud) 방식의 데이터 저장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최신 태블릿 PC의 이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2. 팟캐스트의 제작과 배포

팟캐스트가 가진 매력 중 하나는 제작과 배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팟캐스트를 제작할 수 있다.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와 컴퓨터, 소리와 동영상을 편집할 프로그램, 이 자료를 올릴 서버만 있으면 된다. 물론 세련된 고급 콘텐츠를 만들려면 다양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콘텐츠의 핵심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에는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디지털 장비들로 충분히 가능하다. 편집 완료된 자료를 올리는 서버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버를 소유하고 있는 단체나 교구에서 현재 쓰고 있는 서버를 활용하면 된다.



배포는 편집한 데이터를 서버에 올린 후 그 링크 정보를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아이튠즈(iTunes)에 올리거나 온라인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난다. 아이튠즈에 처음 올릴 때에는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애플이 제공하는 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참조 <http://www.apple.com/kr/itunes/podcasts/specs.html>)

3. 팟캐스트의 사목적 활용의 사례-춘천교구 팟캐스트

춘천교구 팟캐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라는 고민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15)는 복음 말씀의 실천에서 시작했다. 2010년 스마트폰 열풍이 시작되면서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있는 매체가 앞으로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서 교구 누리집을 스마트폰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면서 당시 국내에는 덜 알려져 있는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7월에 시험방송을 두 차례 시도하였고 8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열었다. 5월 말 현재 30회 방송까지 제작 배포하였고, 에피소드마다 1만여 건의 조회(교구 누리집 게시판)가 발생한 상황이다.

내용은 짧은 묵상, 시기별 전례 안내, 성인 이야기, 인터뷰, 교회소식, 생활성가 등을 엮어 누구나 편안하게 들 수 있는 이야기다. 특히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도 거부감 없이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교우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사연을 받아 소개하고 있고, 댓글이나 리뷰에 대한 반응도 함께 나누고 있다. 이 방송에 대한 신자들의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방송을 들으며 늘 살아 숨 쉬는 나의 신앙을 느낍니다. (엘리사벳)
- 출근할 때 전철에서 듣고 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항상 새롭습니다. 좋은 방송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에스델)
- 항상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안식처. (119 구급대원)
- 외국에서 한국소식 그것도 우리 동네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벤쿠버 비아)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한 후 청취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교우들의 영적 갈증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회의 전통 매체들이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교우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좀 더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접하고 싶어 한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팟캐스트는 바로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샘플이 될 수 있다. 가톨릭 팟캐스트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팟캐스트가 현대 시대의 복음화의 도구로서 가지는 가치를 교회의 구성원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기존 가톨릭 매체가 가진 현실적 한계와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팟캐스트는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차별화된 팟캐스트를 제작한다. 가톨릭 단체, 각 교구 및 수도회가 가진 독특한 콘텐츠 또는 지방색을 살리도록 한다. 특히 지역별 특색을 드러내는 교우의 말씨로 이야기를 엮어간다면 그 자체로 청취자들에게 색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

가톨릭 관련 방송국이나 단체 또는 수도회가 이미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팟캐스트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주요 방송사들은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 또는 경제적 이유로 콘텐츠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콘텐츠의 일부분만이라도 소개하며, 필요할 경우 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교우들에게는 정보 제공과 교회 미디어 자료 홍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모든 교구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 가톨릭 팟캐스트를 적극 홍보하여 전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

4. 한국 가톨릭 팟캐스트 현실

2012년 5월 현재까지 한국 가톨릭 팟캐스트의 수는 여타 종교와 비교할 때 거의 개척 수준에 가깝다. 아시아 가톨릭 인터넷 뉴스 5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5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팟캐스트는 약 2,100개이며, 이 가운데 종교 팟캐스트는 270여 개다. 개신교는 204개, 불교 17개, 가톨릭 9개 그리고 여타 종교다. 단순 숫자로 비교해볼 때 팟캐스트 영역에서 가톨릭의 영향력이 극히 작은 것이 현실이다.

다수의 팟캐스트를 올리고 있는 개신교의 경우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없으나, 일단 청취자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설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현재 가톨릭 팟캐스트는 숫자가 적은 데다 최근에 서비스를 중단한 프로그램도 있어 청취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좁은 상황이다. 다만, 국내가 아닌 유럽이나 영어권 가톨릭 팟캐스트는 다양한 주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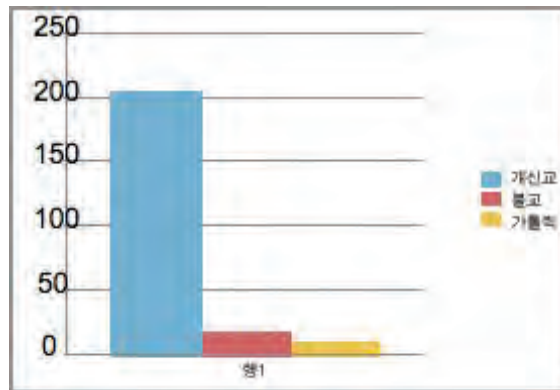


그림. 한국 종교별 팟캐스트 서비스 수

5. 마치는 말

교회가 복음과 가톨릭의 영적 자산을 교우들과 사회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사목과 선교 방법이 필요하다. 팟캐스트는 제작비용과 그 효과를 고려할 때 여기에 아주 적합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팟캐스트는 그 속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과 교회의 영적 보화들을 전할 수 있는 통로다. 다른 종교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가톨릭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선교뿐만 아니라 일선 사목현장에서도 신자들의 신앙 증진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Q 물고기 표지에는 무슨 뜻이 있나요?



A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함자를 감히 사람의 입에 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훼를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에둘러서 ‘아도나이’(주님)라고 일컬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한 적이 있다. 교회 초기에 박해를 받던 때다. 이때 신자들이 서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암호 삼아 주고받던 표지가 있다. 낙서하듯이 땅바닥이나 벽에 슬며시 물고기를 그리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그 뜻을 알아보았다.

당시, 교회에서 통용되던 언어는 그리스어였다. 그리고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ΙΧΘΥΣ’(익투스)라고 쓴다. 그런데 ΙΧΘΥΣ는 Ιησους(예수=예수), Χριστος(크리스토스=그리스도), Θεου(테우=하느님의), Υιος(휘오스=아들), Σωτηρ(소테르=구세주)라는 구절을 이루는 단어들의 앞 글자들이다. 이 절묘한 조합으로 말미암아, 낙서하는 셈 치고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림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라고 남모르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자 아닌 사람이 혹시라도 알아볼까봐 가슴을 졸이면서 물고기를 그리던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긴장감이 느껴진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신앙을 지켜 왔다. 그 전통은 200여 년 전 이 땅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이 살아 있음을 본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닌다. 설마 이 표시를 붙이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행위가 아닐 테니까.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느님의 높고 거룩한 이름을 입에 올릴 때면 고개를 깊이 숙이곤 한다. 그렇다고 나쁜 오후에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고개를 꾸벅이는 것도 앞차의 뒤 유리나 범퍼에 붙은 물고기 표시를 보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일까?

이석규

(가톨릭출판사 문화총서 편집간사, CBCK 교리교육위원회 위원)



수경요법(手徑療法)이란?

수경요법은 팔체질에 맞춘 맞춤요법으로 손의 특별한 혈자리를 강한 자기봉으로 타격하여 누구나 손쉽게 안전하게 통증없이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스스로 병의 뿌리를 치료하는 요법이다.

1.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손에 존재하는 새로운 경락에 시술하므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1. 사상체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팔 체질 치료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각 체질에 따라 그 체질에 알맞은 치료법을 씁니다.

1. 오장육부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주는 요법입니다.

여덟 가지 체질 중에 각자 자기 체질이 지닌 오장육부의 지나침과 부족함을 조절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요법입니다.

1. 병의 근본인 뿌리를 뽑는 치료법입니다.

병의 증상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병의 뿌리가 뽑힙니다.

1. 전혀 아프지 않은 치료법입니다.

새로운 치료기구인 자기봉을 개발하여 자기(자석의 힘)를 이용하여 혈자리를 자극합니다.

1. 배우기 쉽고 시술하기 쉽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배우기 쉽고 찌르는 침이 아니어서 시술하기 쉽습니다.

1. 경비(돈)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큰병을 다스리면서도 돈이 들지 않아서 병든 이웃에게 봉사하기에 좋습니다.

1. 종합병원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많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어서 종합병원 하나를 늘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면역계질환, 퇴행성질환, 부인병계통, 정신 신경계병, 바이러스성 질병

본문은 수경침 연구회에서 발간한 '이종웅 선생에게 배우는 수신경락 팔체질 침' 내용에서 발췌했으며 다음 호에는 각 체질별에 따르는 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응체계, 음양오행, 오장육부, 경락, 오수혈 요법, 사상학과 팔체질 등 내용은 중략합니다. <편집자 주>

▶ 수신경락 팔체질 침(手新經絡 八體質 鍼)

1. 팔 체질

개요(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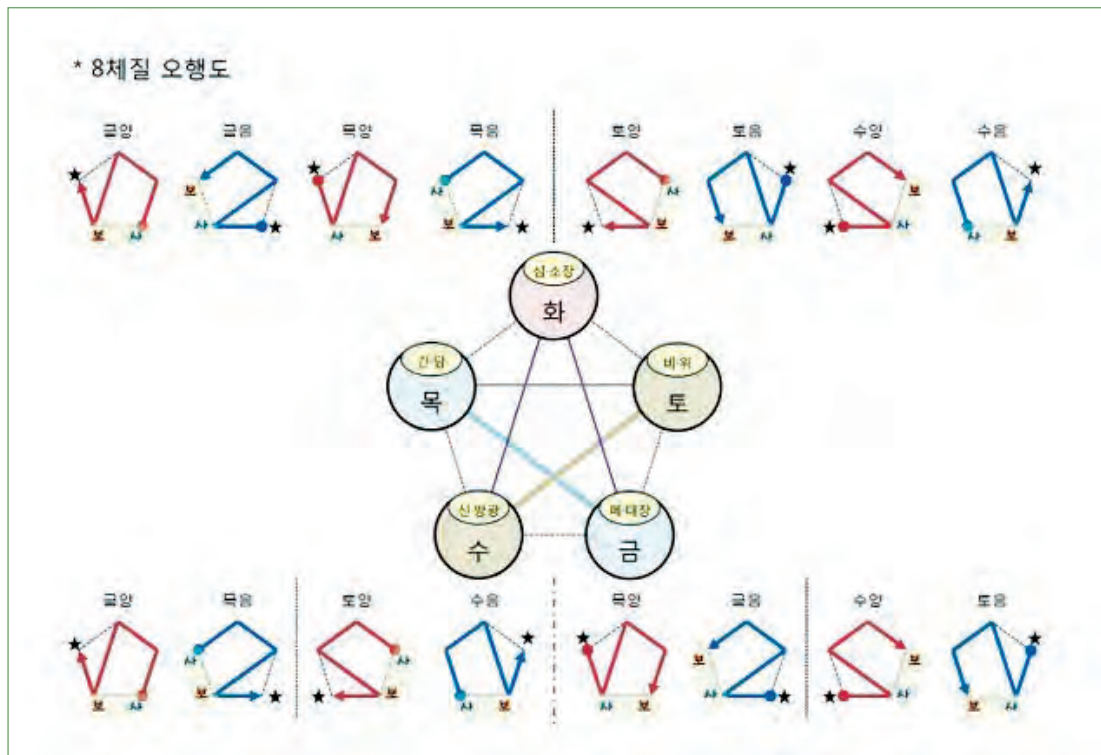
사람은 장부의 크고 작은 배열에 따라 여덟 개의 각각 다른 체질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무 이제마 선생님이 분류한 사상의학이 폐·비·간·신의 4장 대소(大小)로 분류한 것이라면 팔체질은 이를 더 세분화한 팔괘(八卦)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가지 체질에는 각각 가장 크거나 가장 작아서 다른 장부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핵심장부라고 합니다.

이 핵심장이 어떤 장이나 또는 가장 대(大)한 장이나 가장 소(小)한 장이나에 따라 다른 장부에 오행적인 영향을 미쳐 장부 대소편차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여덟 개 체질을 결정짓는 구조가 됩니다.

장부의 크고 작음은 성정(性情), 칠정(七情)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모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체질의 체질별 장부의 배열과 성격(性格), 체형(體型), 저항력(抵抗力) 등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체질은 체질마다 각각의 장부 대소 배열을 가진 인간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체질은 여덟 개의 다른 장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태어날 때 이미 받은 장부배열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오장육부는 장부 서로 간에 오행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각 장부가 운용되고 생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체질은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장부의 대소 편차를 가지므로 오행적인 편차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구조적인 편차, 오행적인 편차를 가지고 있지만 병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행적인 편차가 정도를 넘어서 더 심화될 때에는 병이 됩니다.

정도를 넘은 - 과(過) 혹은 부족(不足)- 오행적인 편차를 바로 잡아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체질침 치료인 것입니다.

팔 체질은 금양체질, 금음체질, 목양체질, 목음체질, 토양체질, 토음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로 구분됩니다.

2. 수경침의 새로운 개념

(1) 독창적인 손(手)의 신경락(新經絡)과 오수혈 정경락 혹은 손의 상응부위에서 시침하는 다른 침과는 상당히 다른 손의 새로운 경락과 오수혈을 찾아낸 것은 수경침만의 독창적인 개발입니다.



1) 역오행(逆五行)의 적용

앞서 설명한 상생과 상극의 작용은 기존의 오행설에서 나온 상생과 상극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수경침에서는 <반대되는 상생과 상극도 있다-역오행>는 가설을 전제로 합니다.

상극의 관계에서 수극화(水克火)를 예를 들면, 정상극(正相克)은 수(水)가 커지면 화(火)가 작아 집니다. 혹은 유추하여 화(火)가 작은 것을 보면 수(水)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도가 높으면 (화-火) 빨래가 잘 마르는(수-水) 역오행도 가능한 것입니다.

2) 각 장부 안에 내재(內在)하는 오행

기존의 한방은 각 장부를 음양오행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각 장부 안에 또다시 음양오행과 상생, 상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경침에서는 장부 안에도 체질에 따른 장부들의 크기에 비례하는 오행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간은 목(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간자체에도 그 안에 이미 오행(五行)이 내재(內在)되어 있습니다. 폐는 금(金)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오행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장부에는 오행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경락에는 목화토금수가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간경락을 보면, 간에서는 목(木)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주로 해독작용을 하고 있지만 간이 살아서 제 역할을 하려면 간에 혈액순환(심장-火)작용도, 영양(비-土) 공급작용도, 가스교환(폐-金)작용도, 정화(신장-水)작용도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간 경락에도 오행의 공급(목, 화, 토, 금, 수)과 작용(목, 화, 토, 금, 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木)은 몸 전체에서 쓰이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을 생산하는 곳이고
 심(火)은 몸 전체에서 쓰이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화를 생산하는 곳이고
 비(土)는 몸 전체에서 쓰이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를 생산하는 곳이고
 폐(金)은 몸 전체에서 쓰이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을 생산하는 곳이고
 신(水)는 몸 전체에서 쓰이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팔 체질은 체질마다 간, 심, 비, 폐, 신 의 크기가 각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금양의 체질의 장부배열은 폐(金) > 비(土) > 심(火) > 신(水) > 간(木) 으로 입니다.

금양체질은 간(木)이 가장 작습니다. 간(肥)이 가장 작으므로 목(木)을 가장 적게 만들어 냅니다.

간에서 폐, 비, 심, 신, 에 보내는 목(木)이 부족하기 쉽습니다.(목이 가장 적습니다.) 폐(金)는 가장 큼니다. 폐(金)는 가장 크므로 금(金)을 가장 많이 만듭니다. 폐에서 비, 심, 신, 간에 보내는 금(金)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폐, 비, 심, 신, 간에 공급되는 오행의 각 기운 중에서 금(金)이 가장 많습디다 (지나칩니다).

같은 논리로 비(脾)에서 만드는 토(土)는 조금 넘치고(많은 편이고) 신(腎)에서 만드는 수(水)는 조금 부족합니다.

금양체질의 폐(金) 안에도 비(脾) 안에도, 심(火) 안에도, 신(腎) 안에도, 간(肝) 안에도

금 > 토 > 화 > 수 > 목의 순으로 금(金)은 너무 지나치고 토(土)는 조금 지나치고 수(水)은 조금 부족하고 목(木)은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평소에는 오행의 균형을 잃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병이 될 정도로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행의 균형을 잃은 상태가 더 심해지면 점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수경침의 치료입니다.

- 장부 속에 있는 오행도 서로 상생(相生)하고 상극(相剋)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상생 상극의 작용을 이용하여 각각의 장, 부속의 흐르는 오행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그 장,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개념은 기존 한방의 개념을 뛰어 넘는 획기적(劃期的)이고 중요(重要)한 개념입니다.

추천자 : 이재철 베네딕도 (djenc@hanamil.net)
 수경요법 신사동 3기(2010.5.8.) 수료
 건축가, 서울평협 홍보위원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체험글 소개>

이 레오 선생님,

저는 지금 멕시코에 와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 시에서 복지회 수녀님들에게 이 요법을 가르쳤습니다. 과거에 수녀님들에게 이요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하였을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해 가르쳤습니다. 저는 멕시코 시에 2일간 머무르고 지금은 과거에 수경요법으로 활동을 하던 곳인 페후안테백에 13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번 이곳 제가 머물던 곳에 조합이 있고 조합원들이 여러 곳에서 이곳 교구 병원에 모이도록 해서 수경요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곳 병원은 원주민들 상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재래의 전통적인 약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나무잎, 풀뿌리 나무 열매로 약을 만드는 병원)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이르마라고 하는 의사가 제가 처음 온 즉시 이 요법을 배워 이 요법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곳 저곳에서 수경요법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오래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마 선생과 수경요법을 배운 사람들을 만나 계속 봉사하고 가르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미흡한 것이 있다면 다시 확인시키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지난 번 여러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 10여 명에게 가르친 것을 자기 고을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봉쇄수녀원에 가서 환자 수녀님들을 돌보고 왔고 어제는 토요일이라 복지회 수녀님들이 수지침을 실시하는 날이기에 저는 환자들 가운데 수경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수녀님들에게도 이 요법을 소개했고 지난 번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에 이 요법을 이곳 수녀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일주일간 머물고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는 전부터 잘 아는 통증치료병원을 개설한 의사 한 분을 만나 그분의 부탁으로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방에서 환자들을 돌보았고 또 돌볼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알러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곳 미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알러지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아 행복해 하는 것에 만족하고 다시 한번 이 요법을 가르쳐주시는 이레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안상인 요셉 신부 올림
-흑석동 본당 은퇴 (09.9월)

기자단 소개, 공지사항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2년 11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대전평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조은정	마리아	chomaria3@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광주 중재사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김혜원	율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공지사항

■ 2013년 한국평협 총회 알림 : 제46차 한국평협 정기총회가 2013년 2월 15일(금) ~ 16일(토) 1박 2일로 춘천시 라데나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평협이 주최하고 춘천평협이 주관하는 행사로 마련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평신도' 원고모집 :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평신도’ 라는 새 발걸음을 내디디며

올해는 한국 평협이 출범한 지 45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평협’이라는 제호로 격월간 발행되던 평협 소식지를 개편하는 작업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홍준 평협 회장님은 미약한 저를 홍보분과장으로 부르시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평협’ 소식지의 개편을 당부하셨습니다. 덧붙여 신앙의 해를 시작한 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할 즈음 작업이 완료되기를 바라셨으므로 저희는 여러 차례 홍보분과 전체 회의를 열면서 제호는 ‘평신도’, 판형은 ‘신국판’,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가미한 계간 잡지로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새로 창간한다는 각오로 만든 첫 호는 미흡하나마 성화 묵상, 수필로 꾸민 평신도 열린마당, 신앙의 해 의미를 고찰해 보는 특별기획, 평신도 영성자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특히 이번 호부터는 각 교구에 기자단을 위촉하여 지나간 행사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행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함으로써 모든 평신도가 타 교구의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또한 교황청 바티칸 삼종기도 강론을 번역해 게재하는 등 평신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평협 소식지 역사를 보면 실로 파란만장합니다. 1977년 6월 25일 타블로이드판 6면 계간지 회보 ‘平協’이 창간됐지만 2호가 발행된 후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1983년 5월 15일 ‘한국평협’이란 제호로 16절 8면으로 재창간돼 발행되다가 1986년에는 ‘평협회보’로 제호를 바꿔 발행했습니다. 이후 1994년 ‘한국평협’(신국판)이란 제호로 1~2년에 한 호씩 발행됐고, 2004년부터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호로 발행되었으며, 2006년 2월부터 지금까지 격월간 ‘평협소식’이란 제호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런 험난한 발행사를 뒤로하고 이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계간지 ‘평신도’는 현직 언론인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회사 업무를 제쳐두고 매주 편집회의를 참여해 의견을 내주신 홍보분과 모든 위원들과 기쁜 마음으로 제호를 써주신 정진석 추기경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형제자매님께 허리 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김병각 · 베드로
(서울평협 홍보분과장)



:: 평행회장, 단체장 자필 메시지

"평신도" 활간을 축하하며
평신도와 함께하는 제창의 빛이 되소서!

사도직 순명을 다함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글가톨릭서약장에반신교협의회 회장
윤재송 (시몬)

2012. 11.
광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 쿼트릭협의회 회장 서경권 베드로

평협 소식지가
알찬 내용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축 평협 소식지 거편을 축하드립니다!
평협 소식지를 통해 권고와 사랑, 격려를
누리는 응응제가 될수 있기를 믿습니다.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 문덕영·알렉산더

전주교 대천교구 평협회장
김홍기 세례라만

평협 소식지 개편을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도구가 되길...
가산교구 평행회장 김광선 바나나

보다더많은 기본소식을 전하는
평협 소식지를 기대합니다.
인천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 정기희 모성

+ 주님 사랑
'평신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하광식 (프란치스코) (부산교구평협회장) (m)

축하합니다. 보다 좋은 소식지가 되어서요.
광주 총재자이신 주리아 세나투스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Time does not change us. It just unfolds us.
Early morning hath gold in its mouth.
Nothing is as far away as one minute ago.*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Time does not change us. It just unfolds us.
Early morning hath gold in its mouth.
Nothing is as far away as one minute ago.*

평신도

발행인 : 최홍준 파비아노

담당사제 : 손희송 베네딕토

발행처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개편 특집호 편집위원 : 김병각 베드로, 김선동 루카, 김창욱 가브리엘,
김태성 안드레아, 박수정 카타리나, 이귀련 세실리아, 이상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재철 베네딕도, 이지연 마리아, 천원주 대건안드레아

제호 :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여효경 세실리아

한국평협 사무국 : 100-809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 02-777-2013, FAX 778-7427

이메일. clak@catholic.or.kr

홈페이지. http://clak.or.kr

한국평협이 펼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 기도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한국평협은 '하느님의 종'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그리고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청원에 한국교회의 열망이 충분히 표현되기를 바라고, 이분들이 하루빨리 제단에 오를 수 있기를 열망하면서,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을 다해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에 모든 교우가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하며 청합니다.

1.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를 봉헌합니다.
2.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성모 마리아의 사랑에 의탁하여 매일 묵주기도 다섯 단을 바칩시다.

